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727 1982년1월21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anuary 21, 1982

JAN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헌

"헌법개정안에 이의 없다"

영국의회 외교위, 통과건의

(런던)영국의회의 외교문제 심의위원회는 캐나다의 헌법 개정안을 채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결론 지었다. 심의위원회는 18일"비록 캐나다가 새 헌법을 가짐으로써 주의 권한에 변화가 오고, 퀘벡이 다른 주들과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더라도 영국의회로서는 헌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보고했다.

작년에 이 심의위는 개헌안이 캐나다의 헌법상 규정하는 연방의 성격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를 표시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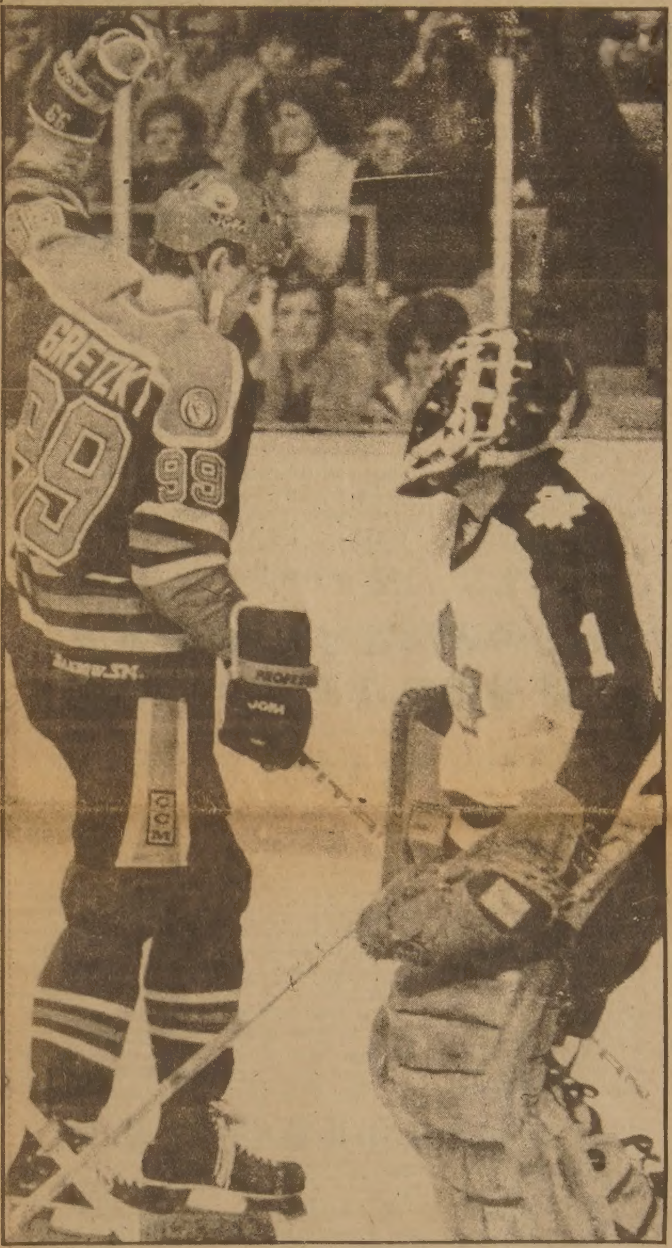
앤토니·커쇼 심의위위원장은 정식 의회제출보고서에서 연방정부와 9개주정부가 합의했음은 캐나다가 새 헌법을 갖는데 대해 국민 전체가 상당한 지지를 보일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하며, 위원회 위원 전원은 퀘벡이 합의에 동참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바라고 말했다.

헌법안이 영국의회의 손으로 넘어간 이후 원주민 그룹들은 이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각계에 헌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설득공작을 펴왔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심의위는 인디언 원주민의 권리문제는 수십년간 캐나다정부와 의회가 연구해온 문제로 적어도 50년 이상 영국의회와 정부는이 문제에 개입해 오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애당초 트루도 수상이제안한 첫번째 개헌안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심의위는 캐나다대법원이 원래의 개헌안을 위법은 아니나 헌법의 전통상 위배된다고 판시한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심의위는 현개헌안 승인요구가 영국의회를 비헌법적 행동으로 잡아끄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영국의회는 지난 50년간 책임을 갖던 캐나다헌법을 떼어줌으로써 무거운 짐을 덜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젊은 99번의 몰락…16일밤 메이플·립스는 홈·그라운드에서 에드몬턴·오일러스를 대파,7:1로 승리를 거두 었다. 수훈의 선수는 메이플·립스 골리 바니·로락(10). 로락은 웨인·그레츠키(99)의 페날티·숏등 34개의 숏을 막아냈다.

오일러스 대패 7:1

승승장구 그레츠키 맥못추어

16일밤 토론토 메이플·립가든에 운집한 16,360명 관중들은 토론토 메이플립스와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경기도중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내는등 환호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 들었다.

하키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평가되며 NHL 각종기록을 돌파, 금년시즌개인성적 200점이상이 기대되는 오일러의 웨인·그레츠키가 신기(神技)를 발휘, 종합순위 16위로 하위권에서 맴도는 메이플립스를넉·다운시켜서 관중들이 환호한 것은 아니었다.

반대로 예상을 뒤엎고메이플립스가 오일러스를 압도, 7:1의 큰 점수차이로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토론토의 승리는 단연골리미셀·로락의 수훈 때문이었다. 그는 웨인·그레츠키의 페날티·숏등 35개의 에드먼턴의 예리한 숏을단 1점만 허용하고 잘 막아냈다.

그레츠키는 메이플·립스의 보슈만에게 철저히 저지당해 여느때처럼 종횡무진 활약할 수 없었으나 페날티 숏등 9번의 숏 찬스가 있었다. 그러나 그레츠키는 로락과의 일대일 대결인 페날티 숏에도 실패하는등 9번의 숏에서 오직 1점을 얻어 이날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0패를 간신히 막아준 유일한 득점선수가 되어 올시즌 57골을 기록했다.

오일러스의 매니저겸 코취인 글렌·사더는 립스의 골리 바니(로락의 애칭)가 아주 훌륭한 게임을 했다며, 패전의 이유중 하나는 신문들이 그레츠키와 오일러스를 너무 떠들어대 토론토팀을 경각시킨반면 에드먼턴은 상대적으로 해이해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레츠키도 바니·로락을 치켜세우는 한편 자기팀이 여지껏 경기에서 먼저 2~3점을 선취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 이번과 같이먼저 기습적으로 3점을 빼앗겼을때 어떻게 할지를 몰랐다고 실토했다.

이번 메이플·립스의 승리는 골리·바니외에도루키(신인) 센터 놈·오빈의주훈이 컸다.

1회전 시작 26초만에 메이플·립스의 윌프·페이 망이 오일러스의 수비 케빈·로뫼로부터 퍽을 빼아 오빈에게 패스한 것을 성공시켰다. 오빈은 6분33초만에 다시 한골을 추가, 오일러스의 기선을 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밖에 토론토는 릭·바이브 2점, 윌프·페이망, 테리·마틴, 존·앤더슨이 각각 1점씩 더했다.

에드먼턴은 토론토에 패함으로써 지난 4번의 경기에서 3번 지고 오직 1번 타이를 이루었다.

또 이번 토론토에 패함으로써 23연속경기에 한번도 패한 적이 없는 에드먼턴 룩키 골리 그랜트·퍼의 기록이 깨졌다.

한편 메이플·립스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쉴사이없이 17일밤 역시 홈·그라운드에서 상승세에 있는 뉴욕·레인저스와 대결, 그 전날 에드먼턴을 대파한 여세를 몰아 6:2로 승리, 같은 조(노리스 디비젼 4위) 위니펙을 승점1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다.

토론토는 또 홈그라운드에서 4연승을 거둠 으로써 홈그라운드에서 맥을 못춘다는 오명을 씻었다.

농부는 백만장자

보통시민의 5배 재산

(오타와)캐나다의 농부들은 백만장자임이 연방기관 농업금융공사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농부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이 회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 농부들의평균소득은 다른시민들보다 훨씬 높다고 결론지었다.

농부들의 평균자산은 부채를 고려하더라도 근44만달러에 달해 나머지 캐네디안들의 평균자산보다 수배에 달한다.

가장 최근자료인 캐나다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캐네디안의 가구당 평균자산은 46,000달러이며, 지난4년간 이것이 배로 늘었다고해도 농부들은 일반시민보다 5배이상의 자산을 갖고있다.

부채도 농부자신들이 주장하는것보다 훨씬 가볍다. 이조사에 의하면 농부들의 총자산 1,000억달러에비해 총부채는 그 6/1선인 170억달러밖에 안된다.

주별로보면 B.C주와 알버타주의 농부들의 톱클래스들은 백만달러 이상의자산을 갖고있으나 퀘벡주의 경우는 부자농부라도 보통 50만달러의 자산밖에 안갖고 있다.

전문별로보면 곡물을 재배하는 농부가 47만7천달러로 제일 부자이고, 그다음은 육우업자, 젖소업자, 양돈업자의 순이다.

한화 환율인하

미화 $1 : 706.07원

(서울19일=연합)한국원화의 대미환율은 19일현재 1달러당 706.07원이라고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이 숫자는 18일보다0.70원이 오른 것이며, 금년들어서는 6.20원이 상승했다.

한편 한국 외환은행의판매환율은 전신환이 708.90원, 현금은 717.31원이다. 구매환율은 전신환 704.50원, 현금 696.09원이다.

통금해제후 한국, 사고도 줄어

정부는 경제회복 노린듯

(와싱턴 18일=연합) 요즈음 서울에 자정이 가까와지면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권위 <워싱턴 포스트>는「통금없는 밤을 즐기는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밤 36년만에 처음 해제된 한국의「통행금지」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통금에 염박하여 택시나 버스를 타려고 혼잡을 이루거나, 밤새 운영하는 디스코·홀이나 다방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 35마일 남방에 위치한 서울 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통금해제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당황하면서도 환영과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트>지는 저명한 한국정부 관리의 말일 인용, 모든 국민이 통금해제를기대해 왔으나 36년간 통금에 익숙해져 그것이 없아는 다소 불안감까지 느낀다. 앞으로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변화할 것이나 서서히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통금이 해제된 후 범죄발생수와 야간 교통사고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동지는 최근의통계를 인용 발표했다.

동지는 또 한국 정부가 통금해제로 경제붐을 일으키려고 하나 실현되고 안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포스트>지는 이같은 새야간의 자유는 전두환대통령이 한국생활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정부의 통제및 간섭을 점차적으로완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인기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처는 적어도이론상으로는 여지껏 금지됐던 공장, 방업소및 비지네스 활동에 중요한 다른 산업시설을 철야운용 함으로써 경제침체 회복을 돕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포스트>지는 더욱 중요하게는 이런 획기적인 제스츄어는 외국인들에게 호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79년10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래 미국과 같은 우방국및 선진산업 무역상대국들과의 악화된 정치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도가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88년 하계올림픽을 고려, 외국인 여행자들의 소비성을 증가시키려는데 우선적인 의도가 있다고 <포스트>지는 말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화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학생모집

본교는 연방정부에 신학교로 정식인가 됨에따라 금년부터 목회자 양성을 위한 M.Div.과정을 설치하고 일반정규 신학교와 같은 수업시간을 마련하여 아래와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원하시는분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모집학과 : 목회과○○명
* 자 격 : 대학졸업 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함.
* 학 제 : 3년(6학기이며 매학기 16학점)
* 수 업 료 : 1학점당 $30(입학금 $50은 별도)
* 수업일시 : 매주월요일 오후6시부터10시까지.
*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ROOM 311, 362
* 개강일시 : 1982년3월15일(월)오후6시
*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1월15일~2월15일 LEE'S PRINTING (2157 A WESTON RD. 244-2301)
* 기 타 : ①본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총회신학교(L.A 소재)에 1년 이수하면 목사로 안수받을수 있음.
②본교의 신과 졸업자는 몇개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을수 있음.
③원서교부 기간동안 신청자가 5명이상 되지않을때는 보류됨.
④5명이상되어 개교된뒤 제출된 서류와 입학금및 수업료는 반환되지않음.
* 문 의 처 : 977-5202, 244-2301, 281-5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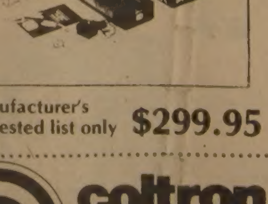
1982년1월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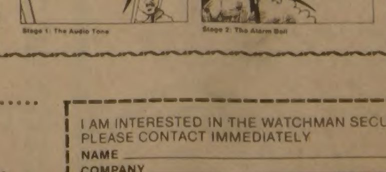
미주한인교장로회 캐나다 노회직영
칼빈신학교장 : 계 화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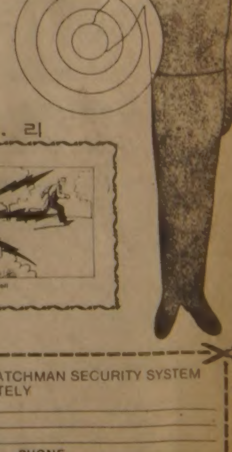
WATCHMAN™
PATENTED SECURITY SYSTEM

도둑을 방지합시다
(도난방지기 세일)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장소나 아름다운 현대식 모양으로 특별한 도구나 기술없이도 장치가능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PHONE NOW (416) 661-3161
사 장 : 쌘 디
한국인 : MRS. LEE
AFTER HOUR(EVENINGS)
742-2421 MRS. 리







Manufacturer's suggested list only $299.95

coltron
International Inc.
864 Alness St., Downsview (Toronto), Ont., Canada, M3J 2H5

I AM INTERESTED IN THE WATCHMAN SECURITY SYSTEM
PLEASE CONTACT IMMEDIATELY
NAME
COMPANY
ADDRESS
PHONE
TYPE OF BUSINESS: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2ND CLASS MAIL NO. 5248

3천여 음악팬을 열광의 도가니로

파바로티공연, 티켓은 $600 에 암매

◇37차례의 박수갈채를 받은 파바로티의 매씨·홀 공연모습

전설적인 명테너 앙리코 카루소 이후 최대의 테너라고 불리우는 이탈리아가 낳은 루치아노·파바로티가 16일 토론토에서 2차례 공연했다.

16일낮3시 매씨홀 공연 티켓은 작년11월 이미매진됐다고 보도됐으나 주최측이 미처티켓을 사지못한음악팬들을 위해 마련한 224매의 40달러짜리 특석티켓을 사려고 음악팬들은새벽7시부터 영하20도의 혹한을 무릅쓰고 줄을서서기다렸다.

하버·캣슬호텔에서 열린 컬럼버스·센터(로랜스 × 더퍼린)를 위한 모금 자선공연에는 커플당 $500 티켓이 $600에 거래되기도했다. 콜럼버스·센터는 문화, 교육및 오락을위한 종합회관으로 온타리오주의 보조로 건설중에 있다.

파바로티는 아리아와 베르디, 비제, 슈베르트의 작품들을 선사했는데, 특히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는 매씨홀에 모인 3천여 청중을 무아지경에 이르게 했다. 한 청중은"그가 살아있을때 얼굴을 한번 볼수 있기만 한것도 다행"이라 면서 비싼 티켓이 아깝지않다고 말했다. 하버·캣슬의 공연에는 토론토의 유명인사들이 우아한 예복차림으로 등장했다. 이튼 재벌의 존·크레그·이튼부부를 비롯, 폴·갓프리 메트로시의장, 이글턴 토론토시장, 로이·맥머트리 검찰총장등정계인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파바로티는 73년과 76년 두차례 토론토에서 공연했었다.

파바로티의 음악가로서의 명성은 여러가지로 세계 최고급. 그가 받는 개런티는 공연 1회당 5만달러이고(한국이 자랑하는세계적 음악가들의 개런티는 대개 만달러미만) 81년 빌보드지가 조사한 클라식음악계 톱10레코드중 5개가, 가장 많이 팔리는 40개 음반중 9개가 파바로티의 것이었다.

파바로티는 이탈리아 의 모데나 출신으로 그는 바쁜 스케줄을 틈타 매일 집에 전화를 거는 가정충실파 음악인이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집에 모인 가족의 수가 32명이었다"는 그는 부인과3명의 딸을 두고 있고, 취미는 승마, 그림그리기, 테니스등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에서 오페라 공연을 가질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시간과 레파토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토론토 팬들을 좋아하므로 곧 기회를 갖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춘문예 시상식

문협, 회장 이취임도

토론토소재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박충도)는 오는 22일(금)하오7시 조정대 신임회장댁(3 Hillbeck Cr)에서 신춘문예시상식, 신입회원 환영식, 신구회장 이취임식, 새해사업계획 수립회의를 연다.

이번제5회 신춘문예 입상자 정봉희씨(시부 가작)에게는 트로피및 부상으로 과거문협합작집 3부(〈새울〉, 〈이민문학〉, 〈이민도시〉)가 수여되며, 시상식후 문협회원 영입식을 통해 회원으로 정식 가입된다.

이로써 문협회원수는 토론토 30명, 한국2명, 뱅쿠버2명, 에드몬톤 1명, 런던1명의 36명이 된다.

음력설 행사

선련사, 범요식등

토론토의 선련사(주지김삼우)는 오는 24일 「구정」을 기해 음력설 행사를 개최한다.

상오11시 정월초하루 법요식으로 시작, 정오의 법문"무엇이 시작인가?", 하오1시 대중공양등이 이날의 행사로 벌어진다.

선련사는 또 삼우스님의 주도로 24일부터 1주일간정초기도를 봉행한다. 연락처는 선련사(533−6911 . 532−3491).

한국인들 마신 술 1년간 10억달러

(서울 14일=연합) 한국인들이 작년 한해동안 마셔버린 술은 값으로 치면 10억달러 정도 된다. 이같은 통계는 13일 국세청 발표로 밝혀졌다.

4대 주요주조업체중 「동양맥주회사」가 4억달러의 판매고를 올려 단연 선두에 섰고, 「조선맥주」가 2억6천만달러로 2위, 「진로소주」는 1억9천만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멕시코에 캔두판매 핵안전수칙에 합의

캐나다는 멕시코에 캔두핵원자로를 팔기위한 우선조건의 하나인 안전수칙에쌍방 잠정합의 했다고 16일 트루도수상이 밝혔다.

현재 멕시코는 6개국이상으로부터 핵원자로 판매를위한 입찰을 받고있는데 캐나다의 가장 강한 경쟁국은 프랑스, 미국, 서독 등이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캐나다와의 협상에 가장큰 장애물이었던 핵안전수칙에 합의함으로써 캐나다로서는 확실하지는 못하나 어느정도 자신을 가질수있게 됐다고 트루도수상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캐나다는 이미 한국에 1대의 캔두원자로를 팔았다.

한국통과 논의

일.중공 항공로

(서울) 한국을 방문중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급간부들과 교통부의 관리들은 일·중공항로의 한국영공 통과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ICAO의 아사드·코타이·태 박사와 성로영 교통부항공국장등은 외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ICAO측이 제안한 일·중공항로의 남북한영공 통과문제를 집중 논의했는데 회담은 14일까지 계속됐다.

현재 일·중공항로는 일본 규슈도의 남단에 있는 가고시마 상공을 지나 한반도를 우회, 상해 상공을 통과해 중공영공으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 항로가 한반도 영공을 통과하게되면 종전 4시간30분의 비행시간이 3시간10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일·중공 항로의 한반도 영공 통과 문제가 여러번 거론되기는 했으나, 서울—북경및 일본— 북한간에 외교관계가 없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서울회담이 끝난 후 코타이테 박사는 중공과 북한을 방문, 이 문제를 논의한다.

새해도 不確實性의 시대

AP통신이 전망한 82년 世界 각地域의 사정

◆동북아=동북아지역의 82년도 뉴스의 초점은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하게 될 경제대국 일본이 될것이다.

한국, 미국, 중동파의 경제관계, 동북아시아에 있어 소련의 세력방위영향등이 스즈끼·젠꼬수상의 자민당정부가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것이다.

스즈끼수상은 최근 집권자민당내에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기위해 개각을단행했지만 산적한 국내경제, 정치문제로 82년한해동안 자신의 권좌에 위협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새해에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것이나 82년도의 경제전망은 불투명하다. 긴 불경기에서 아직회복하지 못하고있는 한국의 전두환대통령정부는 수출목표를 10억달러 하향조정한 계획이며 그결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60억달러 대한차관제공을 둘러싼 일본의 유보적 태도는 한, 일관계를 긴장시켰으며 이 문제는 스즈끼수상의 새 내각이 새로운 노선을 취하지 않는한 82년에 한국의 주요정치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있다.

한국정부의 남북대화제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적대관계는 82년에도 중대한 변화가 없을것 같다.

2백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문제는 이미 방위비증액과 무역적자문제로인해 노출된 미, 일간의 불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것이다.

일, 중공관계는 지난12월중순 일본이 13억6천만달러의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함으로써 개선되기 시작했다.

◆동남아=동남아지역의 공산, 비공산주의 정부들은 그들의 지도력이 이렇다할 강력한 도전을 받지않는가운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관한 외교적, 군사적 교착상태를 둘러싼공방전은 여전히 그들의 주요 외교정책관심사로 남아있을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5개국들은 캄보디아 연정수립을 관철키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나 공산크메르투지와 이에대항하는 2개 비공산세력간의 대립은 치유가 어려울것 같다.

경제재건에 심혈을 쏟고 있는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여전히 베트남의 품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등 5개 아세안회원국들이 세계의 주도적인 경제성장지역으로 82년을 맞이하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웃공산국가들은 불황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식품을 사기 위해 장사진을 치고 있는 폴랜드 국민들.

한국政治안정 經濟 불투명
유럽戰爭 공포 政治不安定

◆유럽=폴랜드위기는 가뜩이나 어려운 장래전망속에 82년을 맞이하는 유럽대륙에 있어 동, 서양진영에 똑같이 또다른 불확실성의 요소를 가중시켰다.

지난해 12월31일의 폴랜드계엄선포는 폴랜드국내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을뿐아니라 동, 서데탕트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할가능성마저 있다.

폴랜드경제의 파산은 동구권뿐아니라 서구에도 똑같은아픔을 안겨줄것이다.

서독은행은 폴랜드가 서방은행들에 지고 있는 총1백60억달러의 부채중 약45억달러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는데 서방금융전문가들은 폴랜드의 대서방채무불이행이 유럽금융체제의 신뢰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소련이 폴랜드에대한 무력침공을 단행할경우 이는 지난해 11월30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유럽배치 중거리 핵무기 감축에 관한 미, 소회담이 끝장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대륙은 폴랜드사태외에도 경제불황, 전쟁의공포, 정치적 불안정, 정신적 파탄등 동, 서양진영이 똑같이 숱한 어려움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

中南美지역 國家 試練계속 美개입強化예상

◆라틴아메리카=라틴아메리카지역 19개국 3억4천1백만 국민들에게 있어 1982년은 또다른 시련의 한해로 간주되고있다.

더구나 역내의 많은 국가들에서 좌익운동이 확산일로에 있고,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강화되리라는 것이 각국 외교관들의 전망이다.

많은 라틴아메리카인들 특히 보수주의자들은 레건미행정부가 과거 지미·카터전 대통령의 인권정책결과로 빚어진 오랫동안의 냉각관계를 청산하고 역내 각국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거보를 내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진보주의자들과 좌익계 인사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사람들은 레건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빈곤을 희생하면서 우익정권들을 지원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日 政局혼미 中共관계는 改善기미

◆아프리카=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독립, 차드와 우간다에서의 평화,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의 경제불황등이 아프리카 대륙의 82년도 주요 쟁점이 될것같다.

리비아국가원수 무아마르·가다피에 있어서는 82년이 아프리카의 단결과결속 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의 새 의장이 되는 해이기도하다.

OAU 49개회원국들은 매년 윤번제로 새 의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다피는 82년중반쯤 케냐출신의 대니얼·아라프·모이 현의장에이어 새OAU의장에 취임하게 된다.

서남아프리카는 미, 영, 불, 가, 서독등 서방5개국의 합의를 좇아 금년에도 남가공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기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나 여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시련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최근의 아프리카독립국인 짐바브웨에서는 82년에도 백인들의 탈출이 계속될 것이며 로버트·무가베수상은 자신의 사회주의 정부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것이다.

제5계절

내고향 알비의 풍속

안토니오·코레아

(명예 한인회원)

◇안토니오·코레아씨

본란의 작자 코레아씨는 이태리에 살았던 한국인의 후예로 알려졌다. 코레아씨는 지금은 아파트 관리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창작활동에 많은 관심이있어 시집도 냈으며, 음악에도조예가 깊어 얼마전 작곡집도 나왔다.

나이 먹은 어른들은 모닥불을 쬐이며 가가호호를 돌며 불렀던 크리스마스세레나데와 그들이 즐겼던놀이를 들려주곤 했다.

크리스마스 전날 24일저녁에는 동네의 모든 집은 멀리서 찾아온 일가친척들의 방문으로 즐거움과 설레임으로 흥청댄다. 아들은 부모를, 아우는 형을, 조카는 아저씨를 찾아 뵙고 연말연시 인사를 드린다.

아이들은 모두 새옷으로단장, 웃친척들을 뵙고 돈과 캔디및 여러가지 선물을받기에 여념이 없다.

저녁 7시쯤 되어 저녁식사가 시작된다. 음식을 갖다놓느라고 분주한 부모들이 식탁을 잠깐 비운 사이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음식접시밑에 편지를 놓는다.

편지에는 그들이 그동안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는 것과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니콜라스(산타클로스)로부터무엇을 받고 싶다는 소망을 적어놓는다.

식사가 끝난 후 자녀들은 부모의 오른손과 뺨에 키스를 하며 축복을 달라고 부탁하고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기구한다.

부모는 교대로 오른손을 자녀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빌며 키스를 해준다.

자정에는 모두 교회로가서 아기예수의 탄생을 축하한다. 또 마을사람들은 집집마다 예수탄생 당시의 말구유간을 재현, 구유에 아기예수상을 눕혀 놓는다.

새해 전날밤은 크리스마스이브와 거의 흡사하다. 새해의 자정에는 모든 집에서 부서지고 쓰여지지않는 물건들(접시, 유리컵, 의자, 사진등)이 길거리 한가운데 버려진다.

사람들은 공중에다 총을 쏘고, 폭죽을 터뜨려 전해의 모든 불행과 악운을 떨쳐버리고 새해에는 행복과 행운이 넘쳐 흐르도록 기원한다.

1월6일(Epifany) 아침에 어린이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성·니콜라스가 선물로 무엇을 갖고왔나 살펴본다.

부활절 기간에는 일상적인 종교행사 외에도 마을사람들은 예수의 일생을극화하여 보여준다. 극에 동원되는 배역과 소품, 분장등은 모두 마을사람 들이 도맡아서 하며 이들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곤 했다.

매년 거행되는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알비마을의 수호자 성·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축제이다. 9월10일에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니콜라성인의 상이 마을사람들에 의해 거리거리를누비며 마을을 일주한 다음, 실제로 돈과 다른 현물과 함께 땅에 묻혀진다. 니콜라상이 원래 있던 교회로 다시 되돌아올 때 교회 문 앞에서는 상을 운반하는 4명의 젊은이들이 계단 앞, 뒤, 위, 아래로 춤을 추며, 왔다갔다 하며 상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구경하는 마을사람들은 웃음과 환성을 지르는가 하면 기도도 드린다.

생일을 지키는 습관도약간 독특하다. 알비마을 사람들은 물론 많은 이태리 사람들은 이름에 성인의이름을 따서 사용한다. 그래서 어느 특정성인을 기념하는 날이 돌아오면 바로 그날이 성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생일이 된다.

장남인 경우 조부의, 장녀인 경우 조모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차남, 차녀인 경우에는 각각 외조부, 외조모 이름을 좇아 사용하는 것도 이곳의 전통이다.

여러해 전만 하더라도자녀들의 배우자를 고르는일은 당사자가 아닌 부모들의 권한이었다. 지금은 부모의 동의와 승낙이 필요하지만 직접 본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한다. 딸을 가진 부모는 아직도 지참금을 준비하여야 하고, 아들가진 부모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만큼 충분한 돈과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죽음은 슬픔과 비탄을동반하는 비극이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적어도 3일동안은 일절 음식 만드는 것과 일을 중지하고,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한다. 이동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은 이들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고인은 언제나 존경의 대상으로 추모된다.

지금은 많은 전통과 관습이 더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전통과 관습중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직도 흥미있고 필요불가결한 것도 많이 있다.

20여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봄과 여름철에 사람들은 한데 모여 지냈다. 청춘남녀들은 신록 우거진 자연에서 함께 노래와 잡담을 하며 사랑을 속삭이고, 나이 많은 여인들은 집 안팎 구별없이 한데 모여 로사리오의 기도(묵주신공)을 드리거나 뜨게질, 바느질및 수선을 하곤 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웃의 농사일이나 여러가지일을 돕는 것을 의무인 동시에 영예로 생각했다. 그러나 단순함과 무지에 기인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타부와 관습도 더러 있다.

끝으로 나는 이 글과 전에 쓴 글들이 「한국일보 」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를 바라며, 모든 한인교포들이 희망과 번영의 82년을 맞도록 기원한다.

◇ 이전합니다 ◇

교민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는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불루아 안경점은 아래 장소로 곧 이전하옵기에 지면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과거와 같이 성원해주시고, 많은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 진 모 올림

구 진 모

구주소 : 629 BLOOR ST. W.

새주소 : 635 BLOOR ST. W

전화 : 531—2236

개업안내

상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을위한 **회소식 !**

금번 한인연합상사(주)에서는 세계각국에서 성행중에있는 비데오 게임 머신을 다량 확보하고 지난1월18일 United Video Ltd 를 설립하였읍니다. 특히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과외수입을 올릴수있는 회소식이오니 관심있으신분의 문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①United Video Ltd 630—0313
②한인연합상사(주) 251—6578—9

United Video Ltd.
대표이사 김 현 모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학생문예>

일일시호일 (日日是好日)

정상진 (워터루대학생)

T군!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아니 그 어두움 속에서도 세월은 무상하여벌써 또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왔네.

지난 여름 내내 이 강산을 푸른 휘장으로 싱싱하고 포근하게 덮어주던 잎들이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외우며 떠나간 자리, 이제는 하얀 눈송이로 단장한 새해의 눈부신 햇살이 영겁(永劫)의 번뇌를 밝히고, 천지에 가득한 무명(無明)을 씻고 조금조금 비춰오고 있네.

옛말에 낙엽은 귀근(歸根)이라더니 아마 그래서 제 고향으로 환귀본처(還歸本處)하느라 울긋불긋한 차림새로 황홀하고 찬란하게 떠나가 버렸는지 모르겠군.

이와 같이 한해가 조용히 저무는 세모(歲暮)나 연초에 이르면 그 마음에 적막감을 느껴, 그것을 달래기 위하여 여행이라도 멀리 떠나가고 싶고, 또 때로는 빌딩의 장글, 자동차의 홍수, 그리고 분주히돌아가고 있는 소음과 먼지속의 도회지를 탈피하여눈꽃가지가 아름답게 일렁이는 한적한 심산유곡의산절(山寺)에라도 들어 진경애세(塵境埃世) 번요를씻은 듯이 잊고, 조용히 정적에라도 들어보고싶은 심정이 불쑥불쑥 솟아나는계절이라네. 그러나 먼 여행을 해봐도 깊숙한 산절을 다녀와 봐도 다시 돌아와 창밖의 정원을 내려다보면 적막함은 여전할 것같은심정이군.

누구나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 크든 작든간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게 마련이라네.

T군! 자네도 금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기 바라며, 또한 그꿈이 원만하게 성취되길 발원하네.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영물(靈物)이 아니랄수 없네. 물리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시간을 오늘이다 내일이다, 또 묵은 해다 새해다 하여 마음대로 갈라놓고, 발원을 세우고 있으니 말일쎄.

불교에서는 시간을 찰나와 겁(劫) 두가지 단위로 분류하고 있지. 「찰나」란 지극히 짧은 순간으로 손가락 한번 퉁기는 사이에도 65 찰나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네. 여기에 비해 「겁」이란 아주 긴 시간을 뜻하지. 경전에 의하면 사방 40리나 되는 큰 바위를 백년에 한번씩 천녀(天女)가 내려와 그 날개로 살짝 스치어 그 큰 바위가 완전히 마멸되기 까지의 시간을 일겁(一劫)이라고 한다네.

T군!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간 것같군. 나는 그날 자네를 만나고 돌아올 때 까닭없이 솜뭉치 같은 비애가 치솟았고, 자꾸만 닦아도 닦아도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슬픔은소낙비처럼 나를 흠뻑 적시었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종종 술잔을 기울이며 잡담을 나누고 다정히 지내던 때도, 자네가 구멍가게 주(主)가 된 것도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군. 내가 CAMPUS에서 젊은 학생들과 젊음을 토론하는 동안 자네는 파워가 막강한(?) 모한인단체의 간부직을 지냈으며, 지상에 글(?)도 많이 발표했었고, 또 한인사회의 저명인사(?)들과의 친분이 많은 것을 내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며 종전엔 자네로부터 찾아보지 못했던 아상(我相)이 역력히 엿보이더군. 나는 너무나도 돌변해 버린 자네의 모습에 새삼 경악을 금치 못했고, 자네와 같이 있던 순간 내내 시종일관 자네의 옛모습을 되찾으려고 애써 노력했다네. 불쾌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움켜쥐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면서 말일쎄.

그 냄새란 사람의 인격이나 행실에서 풍기는 악취였다네. 인생이 돈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돈만 아는 인간들이 풍기는 어떤 냄새나 혈연, 지연, 학연(学緣)~찾아다니며 아부하며 조그마한 자신의 이득이라도 거둘까하여 분주히 뛰어다니는 이들이 풍기는 냄새. 또한 수많은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자기주장을 합리화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고, 이른바 말로써 족히 그 잘못을 미화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들이 풍기는 냄새등이었네.

이런 악취를 발산하는요소들이 교육자 출신인 T군 자네의 심부(心部) 깊숙한 곳까지 오염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네.

아뭏든 권위와 명예를생명으로 하는 견고하고 무게있는 교육자가 되어보겠다는 가당찮은 웅지(雄志)를 갖고 수기(修己) 해 온 이 만학도(晩学徒)의 마음에 적잖은 미동이 일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쎄.

T군! 자네에게 그토록 육중한 압박감을 주어 Tension을 수축시킨 이유들이 뭔지 나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네. 그것이 만약 고달픈 이민생활과 지루한 구멍가게 때문이라면 백령도를 거쳐 이천농고에서교편을 잡다 역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L군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네. 언젠가 몇몇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낙도의 불우한학생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약간의 기금을 모아서 보내자고 제의했던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옛날 몸담아 있던 시골학교의 제자들이 축구의 강팀인 서울의 모고등학교를 누르고 우승했다는 기사를 지상에서 읽고 감동하여 선수들의 불고기파티 값으로 약간의 금액을 우송한적이 있었다던 아름다운 마음씨를 아직 보존하고 있는 L군을 말일쎄.

T군! 자네와 사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네보다 지적 수준을 낮게 생각하여 격하시키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나보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순진한 10대 소년처럼 말했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난 얼마나 행복하겠나!

원래 도인(道人)은 동심(童心)이란 말이 있지않나 내 나이 벌써 30고개를 넘었으니 십대의 순정이야아직도 보유했으리마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소시민적인 충동을 기탄없이 발휘하는 대중의 물결에 아직까지는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것일쎄.

T군! 벽암록(碧岩録)에 보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말이 있다네. 하루하루가 날마다 길일이라는 뜻이라 생각되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차원을 달리한 성현들의 인생관이라 할 수 있겠지. 우리의 일상이란 기쁜 날보다는 괴로운 날이요, 맑은날보다는 궂은 날이 더 많은겔 사실이고 보니 日日是好日, 그것은 물론 성현들의 지혜를 얻어 안심(安心)을 얻었을 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으니 일체의 모든 것이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란 뜻으로해석되며, 즉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사는 전개되는 것이리라. 따라서 금년 한해의 길흉도 오직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낙관적일까? 아니면 비과학적일까?

T군!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나는 발원하는 바이네. 아무쪼록 새해 임술년을 맞이하는마음을 잘 가져서 1년내내기쁘고 즐거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 계속되도록….

주간女性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장편연재소설>

영원의 방랑객 ③

첫 부임(고삿갓)

고마태오(종옥 : 토론토한인천주교신부)

196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학기말 시험을 막 치르고 난 어느날, 롱도 관구장신부가 나를 모래알에 있는 관구본부로 불렀다. 나는 지체없이 그분을 만나러 모래알에 갔다. 여러가지 일반적인 이야기가 오고 간 후, 그분은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태오 신부님, 한국에진출하려는 우리 관구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며칠전 관구 참사회의에서 그것을 결정했읍니다."

"그렇습니까? 관구장 신부님?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릴만한 중대한 이유라도 있읍니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캐나다에 오게 된 것은 도밍고회 총장신부의 권고였으며, 또 롱도 신부의 초청에서였다. 당시 일본에서 전교활동을 하고 있던 캐나다 도밍고회에서 한국진출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내가 특별히 캐나다에 초청되어 왔던것이다. 그런데 이 계획이취소되었다니 나는 놀라지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놀람과 섭섭함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요즘 수도회 입회 지망자의 급격한 감소와 늘어만 가는 신부들의 환속앞에 한국진출에 관한 우리 관구의 계획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소."

"물론 제가 도밍고회에 입회한 것은 한국진출을돕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졌다니 섭섭한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

"한국을 위해 일할 수있는 기회가 당분간 없어졌다지만 주님을 위한 사업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오. 어디서 뭣을 하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때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될거요. 주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니 당신이하는 일을 통해 당신의 조국을 축복하실거요."

"잘 알겠읍니다, 관구장 신부님."

"나는 태오 신부가 이번에 신학원을 수료하면 모래알대교구장이신 레제 추기경의 요청에 따라 모래알대교구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지도신부로 파견할까 하고 있소. 약 2년간 사목경험을 한 다음 박사학위 과정을 계속하도록 하시오."

"일본인들을 위한 지도신부로 저를 파견하시겠다고요?…"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어느날 일본인들을 위해사목활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일본인을 위해 신부가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렇소. 당신은 일본말을 잘하지 않소? 모래알에는 일본인 교우들이 약100세대 있는데, 그들을 지도할만한 일본인신부가 없다는 거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립된 성당을 갖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수년간 사목한 경험이 있는 캐네디언 신부가 본당신부로 있지만 그것이 아마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소. 그래서 레제추기경께서 당신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소."

얼마전 일이었다. 레제 추기경께서 우리 옷따와수도원을 방문하셔서 우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신 일이 있었다. 그때 레제 추기경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일본인인줄 아셨는지, 일본말로 인사하셨다. (레제 추기경께서는 사제로서 품되신 직후 4년간 일본에서 전교활동을 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에 지부를 갖고 있는 캐나다 도밍고회 신학원에는 가끔 일본인 회원이 와서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일본말을 잘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자기 교구에 파견되어 와서 일본인 교우들을 위해 사목활동을 해줄 수 없겠는가를 문의 하셨다. 그때 나는 아무런생각없이 장상의 명령에 순명하겠다고 답해 올렸다. 아마도 이런 것이 연유되어 레제 추기경께서 나를 초청하신 것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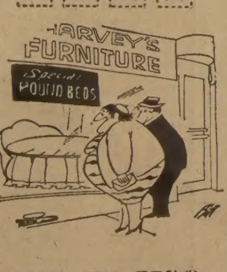
"하지만 관구장 신부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는 아직도 적대감정이 있읍니다. 특히 한국인은 일본인을 싫어합니다. 관구장 신부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조국은 세계 제2차대전 말까지 36년간 일본의 침략을 받아왔읍니다. 그러한 과거 때문에 저도 일본인이라 하면 싫어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민족적 감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은 민족성을 초월해주님의 사업을 위해 일해 야할 신부가 아니오?"

롱도 관구장신부의 인자한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냉정해졌다. 다소 그런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내뜻을 솔직하게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로 했다.

〈계속〉

걸작漫畵



(가구점) (특제 둥근침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전문시장조사요원모집

당관은 한.카 무역량이 급증함에따라 각종 업무가 폭주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카나다의 계속적인 시장확대와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능한 시장조사요원을 채용코자 합니다.

— 아 래 —

1. 학 력 : 대졸이상(경제학 또는 마케팅 전공자
2. 경 력 : 무역회사 또는 조사기관 2년이상 근무자
3. 자 격 : * 캐나다시민 또는 영주권 소지자
*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자
4. 대 우 : 경력에따라 우대함.
5. 신청마감 : 82년 1 월29일까지 이력서 및 명함판 사진1매를 당관에 제출.
※ 문의사항 : 당관 임과장에게 문의바람

토론토 무역관
20 QUEEN ST.W. # 2802 TOR, ONT. M5H 3R3 전화 : (416)977-8784

"우리들의 집"
클링톤 HOTEL
(클링톤 하우스)

제가 얼마전 클링톤 호텔을 인수하여 뒤늦게나마 인사 드립니다. 교민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지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내왕하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김 영 규 배

* 그룹파티 대환영(파티, 회의, 동창회, 친목계등)
미팅·룸이 20명, 50명, 100명으로 나누어져 시설이 되어 있읍니다.
* 교민에게 언제든지 실비제공 합니다.
* 지하실에 나이트 클럽시설을 준비중이며 약1달내에 완공 예정 입니다.

매일 낮12시~새벽1시까지

693 BLOOR ST.W. 전화 : 535-9541
(At Clinton St.)(아리랑식당 건너편) 531-0945

BAKERY DELITE
A CANADIAN FRANCHISE
20 LOCATIONS

* 높은 수입의 빵가게
* 후랜차이스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 완전히 훈련시킵니다.
* 모든 재정문제를 조정합니다.
* 우선 상업지대에 투자가능.
* 현금투자 35,000달러
* 예상첫해 매상 150,000달러

BAKERY DELITE
• 온타리오 전역에 좋은 위치
• 이윤좋은 각종 식빵 제조업
• 완전 자동 OVEN

김 영 창
전화 : 883-4550,
1-826-7150

全大統領 國會서 國政연설

국무회의 임시國會 22일召集요구 議決

정부는 올해부터 대통령의 새해 國政연설을 국회에서 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15일 하오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올해 國政 — 연설을 위해 제109회임시국회를 오는 22·23일 소집토록 요구하는 「국회의 임시집회요구안」을 의결했다.

"政府·國會 정상적關係정립 民主主義의 土着化를 실현" 李文公

"올부터 年頭會見 않기로" 民正 奉대변인

이날 국무회의가끝난뒤 정부대변인 李光杓문공장관은 임시국회소집요구의 배경설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간의 정상적인 관계정립을통해 민주주의의 土着化를 실현하려는 全斗煥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게됐다』고 말하고 『국회에서 새해의 國政방향을 밝히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되고 미국·일본등 외국에서도 관례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또『지난68년이후 국회에서의 國政을 밝히는 관례가 중단돼왔다』고 말하고 『그것은 與野간의 극한대립과 반목·갈등을 계속해온 정치풍토 때문이었던만큼 제5공화국에서는 이같은 정치풍토가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이있어 연초에 정식절차를 거쳐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奉斗玩 民正黨 대변인도 이날『22일하오 全斗煥 대통령이 국회에서 國政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금년부터는 대통령의 年頭기자회견은 없애고 해마다 국회에서 國政연설을통해 施政방침을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奉대변인은 全대통령이 11代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치사를 한것과 제1백6회및 1백8회 폐회식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상기시키며『한해의國政방향을 民意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밝히는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말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年頭교서를 발표한것은 63년부터 67년까지 5차례이며 그후 68년이래 중단되어왔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견을 표시한것은▲48년 9월18일 制憲국회때 李承晩 전대통령이「한국과 英國정부간의 재정및 재산에관한 협정 동의안」의 취지설명때와 ▲64년6월26일 6代국회때 朴正熙 전 대통령이「時局수습에 관한 연설」을 한것등 두차례뿐이다.

奉대변인은 또국회에서의 國政연설은 과거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식국회운영을 지양하고,국회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오는임시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새해國政에 관한 연설과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된다.

◇임시국회소집요구에관한 헌법조문▲헌법제83조1항=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의해 집회된다▲"83조4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요구할때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한다▲"83조5항=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 임시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議案에한해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의 집회요구시에정한기간에 한해 개회한다.

70年代 「反目」청산 국회 活性化 기여

해설 정부가 올해부터 새해의 國政연설을 국회에서 하기로 한것은 反目·갈등의 70년대정치를 청산, 정부와 국회간의 정상적인 관계정립을 통해 민주주의의 土着化를실현하기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또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民意收斂기능을 육성화하려는 全斗煥 대통령의 議會政治觀을 반영한것이기도 하다.

제3공화국의 6代국회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國政연설을 해왔으나 68년부터는 國政연설대신 年頭기자회견으로 대신해 왔다.

국회에서의 國政연설이 중단된것은 정부와 국회, 與黨과 野黨간의 극한대립, 反目등 당시의 정치풍토때문이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새로운정치풍토가 조성됐고 특히 單任으로 평화적 政權교체를 보장하고있는 만큼 舊시대와 같은 정부·국회간의 疏遠한 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실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全대통령은 11代국회開院式에 참석한 것을 비롯 1백6회및 1백8회 閉會행사에도 참석, 국회관계의 親和感을 조성해왔다.

또 금년도예산심의때도 이른바 정부·與黨案의 사전화정을위한 黨政정책협의회 주재를취소, 국회에서의자율적인 예산심의를 보강하는등 국회 활성화를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분위기에서 國政연설을 국회에서 하기로 한 결정은 앞으로의 국회活性化를 뒷받침하고 새 시대의 창조적 정치구현을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政治部】

特定人 權力집중 되풀이말자

執權黨 기능살려야 政治的실패 막아

全대통령, 民正創黨한돌 紀念式 致辭

◇民正黨창당 1주년기념식에서 치사를 하고있는 全斗煥 대통령.

民正黨 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15일『과거를 되돌아볼때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특정 소수인이 정치와 권력을 左之右之함으로써 정치가 정당밖에서 이루어졌던 우울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있다』고 지적하고『이러한 현상은 民意정치를 실현하는데있어 커다란장애요소가 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실패로이끈 근본이유가되었다』고말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 民正黨舍에서 열린 창당1주년기념식에 참석, 치사를통해 이같이 말하고『執權黨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이야 말로 과거의 정치적 실패를 단절시킬수 있는 하나의길』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民正黨이 국민앞에 다짐한 民主福祉국가건설의 열매를 맺기위하여 무엇보다 필요한것은 국민의 지속적인 신임을 유지확대하는일』이라고 말하고『이것은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정당이 名實相符한 정치의 중심이라는 자각아래 책임정치를 주도할 결의를 갖출때 비로소 가능한것』이라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이어『본인이총재인 民正黨과본인이 대통령인 정부와의 사이에는 상호불가분의 긴밀한 協調관계가 형성되어야하며 특히 참신하고 실효성있는 政策을 개발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協調관계는 더없이 두터워야한다』고 黨政協調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國政을 주도하는데있어 黨의 功過, 정부의 功過 그리고 본인의 功過가 서로 구분되기 어려운 하나의 함수관계를 이루어갈수있도록 熱과 誠을다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통일과업이민족의 문제이고 따라서 민족자주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족의 뜻을 모으고 力量을 길러나가는 튼튼한 터전이필요하다』고 말하고『民正黨이 그터전이 돼야하고 국민의 기대또한 그러하리라고확신한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民正黨이 새政治를 책임지고 조국통일의 주도세력이 되기위해서는 참다운 國民政黨으로 성장 발전하는길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우리黨이 1백만당원 精銳化계획을 세우고「제2의創黨」이라는 인식아래 이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는것을 마음든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 民正간부에 指示

"政策개발 注力토록"

참신한 人材迎入 黨力量 길러야

民正黨총재인 全斗煥대통령은 15일상오 民正黨창당1주년 기념식이 끝난뒤 黨간부들을 총재실로 불러 執權黨으로서 정책개발에 주력할것과 정당운영경비를 절약하도록 지시했다.

全대통령은『民正黨이 執權黨으로서 政局을 이끌어가기위해선 전문지식이있는 참신한인재를 영입하여 정책개발을위해 노력하는한편 黨소속의원들과 사무국 요원들의 자질향상과 理論무장으로 黨의力量을길러야 한다』고말하고『黨員들에대한 지속적인 정비보강과 硏修를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정당운영비를 최소한으로줄이고 黨의 행사나 연회등의모임도 화려하지않고 간소하면서도 내실을기하도록하라고지시했다.

紀念리셉션 참석 美上院의원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5일하오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함께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民正黨창당 1주년기념리셉션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청와대에서 프랭크·머코스키美上院의원(共和·알래스카州)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宣基동자부장관과 워커駐韓美대사, 프랭크·존즈알래스카 鐵道총장이 배석했다.

民正, 創黨한돌 어제紀念式

모범黨員 표창도

民正黨은 15일상오 중앙당사 통일관에서 全斗煥총재내외를 비롯 李載瀅대표위원등 당간부와 창당발기인, 중앙위운영위원, 市·道사무국장등 3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黨1주년기념식을 가졌다.

이날상오 全총재의 입장에 이어 국민의례로 시작된 기념식에서 李載瀅대표위원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民正黨은 새시대의 영광된 主役이될것을 자처하여 새역사창조에 몰두한지 1년이 지나 창당1년을 맞이했다』고 회고하고『1년전 오늘 민주구국의 여망에 서약한 우리의 첫 과업을 큰 허물없이 해냈던 것은 당의 기본목표인 민주주의,정의,복지,통일을 향해 단합하여 매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 또『올해에는 더험한 길과 더 많은 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새겨야할것』이라고 말하고『우리는 기필코 어려움을 헤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거창한 민족의 과업을 다 해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全斗煥총재는 모범당원 1백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借款償還 협상 무기中止 결의

16개 對波債權國

【파리14日AP=聯】 美·日·西獨등 자유세계의 16개 對폴란드채권국들은 14일 파리에서 국제회담을열고 폴란드와의 차관상환에관한 협상을 무기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말했다.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16개채권국들은 폴란드가 올해에 상환해야할 공공차관 35억달러를 재조정해주기위한 협상을 동결키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상환분인 25억달러를 8년간에걸쳐 분할상환토록 해주기로한 지난해 1월의 협정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中旬 또 豫備회담

韓日실무會談끝내 經協규모 外相회담서 決定

韓日양국의 외교실무진은 15일 外相會談의 개최를위한 2차예비회담을 속개, 첫날 합의한 외상회담의 조속한재개를 거듭확인하는 한편 이를위한 또한차례의 예비회담을 늦어도 오는2월중순안으로 東京에서 재개키로 합의하고 이틀간의 회담일정을모두마쳤다.

외무부회의실에서 속개된 이날의 2차회담에서 양측은 외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다음 예비회담에서 최종확정하되 필요한경우 이틀 한두차례 더연장한다는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經協타결의 관건이되는 양측의접근방식도 아울러 협의, 정부측의「정치적 一括타결」방식과 日側의「프로젝트별 積算방식」간의 異見폭을 줄이는데 노력한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회담을통해 양측의입장과 사정을 충분히 검토, 이해에 접근했으며 다음예비회담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의합의를 전제로 외상회담의 구체적인일정과 의제가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經協의 구체적인 내용조정은 이번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고『최종액수는 외상회담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담은 첫날보다 늦은 하오6시부터 속개됐는데 日側대표단은 회담에 임하기에앞서 상오 [illegible]경제기획원차관과 [illegible]재무차관을 차례로 예방, 관계자들로부터 정부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의 주요내용을 청취했다.

이들은또 하오 盧泰愚정무 제2장관등 정부관계 요로를 방문, 일본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日側의 한 관계자는 한국측으로부터 청취한 주요내용을 日本정부의 분석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日대표단은 2박3일의 공식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상오10시 JAL편으로 離韓한다.

日紙, 예비會談報道

"韓日 對話실마리"

【東京15日=聯】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등 日本의 전국주요일간지들은 15일 韓日외상회담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사진과함께 4단크기로 보도, 양국간에 대화의 실마리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들 신문들은 한국의 입장이 종전과 전혀 변한것은 없는것으로 보이나 이번 회담을 앞으로도 계속하기로하고 외상회담도 조기에 실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절충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中小企業서 필요한資金 業體當 1억1천만원

企協조사…32%가 資金惡化

중소기업의 투자의욕이 떨어져있다.

15일 企協중앙회가 1천개표본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4분기중 필요자금규모는 업체당평균 1억1천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시설투자규모는 1천5백90만원으로 13·7%에 불과했다.

시설투자비용은 업종별로 큰격차를보여 음식료품가구목재등은 5~7%에 불과했고, 1차금속업종의 24·5%를 제외하곤 모두기업의시설투자비중 하한선 20%에도 못미쳤다.

1차금속 다음으로 시설투자비중이 큰 업종은 금속전기기계장비 15·1%, 잡화류15%, 고무 화학 플래스틱14·7%,섬유13·6%,비금속광물12%,제지 인쇄 출판11·5%등이었다.

이조사에 따르면 이기간중 자금사정이 나아질것으로 보고있는 중소기업은 12·8%에 불과한반면, 악화될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32%로나타났다. 또 이기간중 필요자금의 他人資金의존도는 43·1%로 대부분 금융기관을통해 이를 조달할계획인것으로 밝혀졌다.

美·中共 관계 중대危機직면

【北京14日明報=聯】美·中共외교관계는 14일 臺灣에대한 무기판매문제를 둘러싼 존·홀드리지 美국무성 東亞太담당차관보의 對中共설득작업이 일단 실패하고 중공측이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강행을 비난하면서 양국관계가「가혹한 시험」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중대위기를 맞고있다.

홀드리지차관보는 중간기착지인 東京으로 떠나기앞서 北京공항에서 美·中共양국이 대만에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문제를 앞으로 계속 협의할것이라고 밝혔으나 귀국후 美정부에 대해 美·中共관계가 현재 심각한 긴장을 맞고 있음을 보고할것으로 알려졌다.

홀드리지차관보가 중공방문을 끝낸것과 때를 같이해 중공관영 新華社통신은 논평기사를 통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강행으로 양국관계가『가혹한 시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문제는 즉각적인 해결을 필요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통신은 美國의 계속적인 무기판매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협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美·中共관계는 美정부의「현명한 선택」과 中共主權의 존중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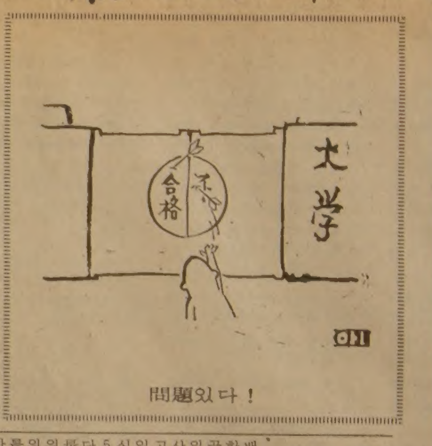
日서 2백20년만에 慰靈祭

大阪서客死한 朝鮮통신사 隨行員

【東京15日=聯】일본 에도(江戶)시대에 朝鮮통신사 수행원으로 일본에왔다가 오오사카(大阪)에서 객사한 두명의우리선조들에 대한 위령제가 2백20년만에우리교포 청년들에의해 오는24일 오오사카市 다께바야시(竹林)寺에서 조촐히 거행된다.

재일교포 청년들은 히가시·오오사카(東大阪)에살고있는 李健雨씨와 金辰夏씨(29)등 10명으로 지난해12월 우연히 朝鮮통신사 한사람의 무연고 묘가 다께바야시 절에 있다는이야기를 전해듣고 이국에서죽은 선조의 영혼을 공양하는것이 민족의식을 되찾게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을갖고 동료들에게 제의하여 호응을 얻게된 것이다.

社會漫評



問題있다!

地平線

「한국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를까? 일본의 野村연구소에서 특별연구부주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森谷은『관존민비사상과 손에 때를묻히기 꺼려하는 문관지배전통,公보다 핏줄을 존중하는경향』을 들고있다. 중공의 만화가 阿偉는 말주딱의 한민족을 허리를 굽혀 인사 잘하고, 물건을 머리에이고 다니는 사람들로 그리고 있다.▼『전국 신인 프로복싱서 柳長官KO승』— 작년 5월9일자 한신문의 제목이다. 깜짝 놀라서 읽어보면 柳長官은 나라살림을맡은 정부의 장관이 아니다. 프로복서의 꿈에 도전한 젊은이의 이름이 長官일 뿐이다. 아닌게 아니라 괴짜들의 괴짜기록모음인 기네스기록집을 만들어 내는 서양에서도 장관이 글러브를 끼고 프로경기에 나서는 일은 좀체로 있을수 없는 일이다.▼가짜 검사 시보 행세를 한 전과 9범의 사나이가 11명에게서 1천3백만원이나 우려낸 사건이 재작년5월초 들통났었다. 검사시보라는 엄포에 어엿한 대학교수와 사장님들이 넘어갔던 것이다.『고위층과 통한다』는 속임수로 2억원이나 등쳐먹은 사기꾼들도 재작년2월초 붙잡혔었다. 엉뚱한「권세」에 맥을 못추는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일들이다.▼아직도 핏줄이 미더이라고 생각하고있는 이 사회에서는 족보를 비디오로 만들고있다 한다. 조상의 무덤사진에다 집안계보를 그림으로 그리고, 종친회 사진등을 넣어서 60분짜리 영화로 만드는 것이다. 명화한편 만드는만큼 큰돈이 든다고 한다. 일본의 森谷이 지적한「公보다 핏줄」이라는말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알만한 일이다. 물려받은 전통은 그렇게 강력한것이다.▼『2500년의 유신비를 풀어 민족과 인류앞에 밝히고, 전문기관의 권적 답변을 구한다!』는 대문짝만한 광고가 15일자 한국일보 9면에 났다.「임의의 각은 3등분할수없다」는 유클리드이래의 공리를 뒤집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물리학의 철칙으로 돼있는「무한동력기관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뜨렸다고한다. 그렇다면 2500년만의 혁명일 것이 틀림없다.▼수학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수도 없지만 어쨌든 이 연구자가 우리물레에서 흔히 보는「한국인」이 아닌것은 분명하다. 실력이 있으면 법과나 경상이 아니면 의과로 가게 마련인 대학입시풍토와도 다른 풍토의 한국인이다. 그는 가짜권세에 사기당할 일도 대학의 인기학과에 신경쓸 일도 없었을게 분명하다. 우리의「교조주의적」문화전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完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쌀값이 내렸읍니다.

장미(쌀)	50 lb	$21.75
가주특산미	50 lb	$18.95
사뽀로이찌방	1 BOX	$7.95 (24개용)

— 배달도 합니다 —
동양식품
1662 Jane St. 248-5131

日·中共 直航路 한국領空통과 의의

中共「對話窓口」기틀잡고 서울을 東洋의 關門으로

政府、東北亞航路개설도 기대

北京—東京간직선항로개설문제는 직접당사국인 中共、日本은 물론 우리정부와 北傀를 비롯 제3국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사가되고있다。

정부는 4개국순방에 나선 UN산하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아사드·코타이트議長의 방한을 맞아 외국민간항공기의 한국영공통과허용원칙을재천명하고 구체적인 대안을제시했다。

한반도의 정치적현상을고려 南北韓상공통과 2元항로가 상호균등하게 동시에 개설되어야 하며 南韓노선은 東京—江陵—서울—天津(또는 포토)—北京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입장을 제시했다。이 문제는 코타이트議長이 4개국이제시한 이해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당사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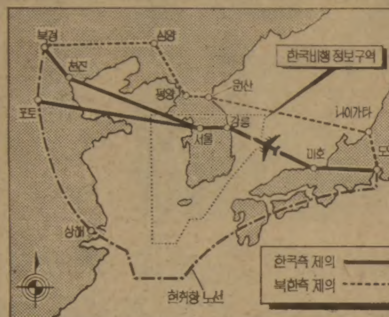
이문제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있는것은 일본의 JAL과中共항공(CAAC)。현재 東京—北京간 항공노선은 한반도남쪽을 크게 우회하고있다。東京—제주도 남쪽—東支那海—上海—페이시안—포토—北京으로 이어진다。이노선은 前미국 대통령 닉슨이 北京을 방문했을때 이용했던 항로여서 일명「닉슨루트」라고 불려지기도한다。

이항로에는 JAL 주11회、中共항공 주12회、기타 팬암、에어프랑스등이 운항하고있다。직선항로개설로 이들 항공기들의 비행시간이 1시간30분가량 단축되어 보잉747기 기준으로 연료소모량이 7천갤론(7천달러)이 절약될수있다。연간 연료절약경비는 6백만달러。

이처럼 지름길을 두고우회하는 문제에 대해 ICAO측은 항공경제측면에서 직선항로개설에 따른당사국의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ICAO측은 80년3월 4당사국간의 비공식회담을 재의한바있으나 북괴측이 남북분단을영구화한다는 구실로 반대해 실현되지 못했었다。또한 국—中共—北傀·일본—北傀간의 외교관계가 없어직접협의되지 못하다가 ICAO측의 4당사자 순방협의로 주선이 된것이다。ICAO측은 80년12월 南北韓의 정치적현실을고려、東京—미호—江陵—서울—포토—北京을 잇는 南北노선과 東京—新潟—北韓상공—平壤—北京간 北韓노선 등 2개의 직선항로를 동시에 개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번 직선항로개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中共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할수있다는데 있다。직선항로가 개설되는경우中共과의 비행정보、기상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관제탑끼리、관제탑과 항공기간에 비행정보 교환으로 단절된 中共과 대화가 가능한것。비상착륙이나 기술착륙때 연료제공 정비제공등을 할수도 있다。

또 먼 장래에는 우리 항공당국의 구상인 東北亞항로개설을 기대할수 있게된다。中共의 문호개방정책으로 구미 각국의 中共행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런 문제들이 실현되면 서울은 중간기착지로 부각될것이 틀림없다。



서울·中共·유럽 幹線도 형성

중간 寄着地로 각광 노리고

旅行시간단축 觀光유치도 한몫

한국은 아시아의 동북쪽에 위치、中共·蘇聯과 접하고있고 북괴와 대치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항로연결에 매우 불리한 여건에 빠져있다。그래서 서울에서 연결되지 않는 국제여객항로에서 서울은 지선의 종착역에 불과한 실정이다。정부는 최근 2~3년전부터 中共항로 개설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번 직선항로개설로 中共과의 대화의 채널이 마련되면 우리의 中共행항로나 中共항공기의 서울 기착이 가능해지고 이문제가 실현되면 中共행 비행시간이 2~3시간 단축될수있어 서울—中共—유럽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트렁크·라인(幹線)이 형성될수 있다는 기대를할수있다。홍콩·싱가포르등이 관광국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한것은 이들나라들이 모두트렁크·라인에 위치해있기때문이다。

中共은 앞으로 막대한 잠재적 관광수요가 예상되고 太平洋지역 국가들과 중간에 있는 서울은 중간기착지로 각광을 받게되어 관광객유치나 중계무역지역으로 부각할수있는 길이열린다。이런 문제들이 실현되면 서울도 방콕이나 동경에 비해 손색이 없는 동양의 새로운 관문으로 등장될수 있다。【林秉茂기자】

"防衛力정비에 最優先"

日自民黨을 黨運動방침

"蘇軍增強 큰위협" GNP1%추진

【東京15日=聯合】일본집권自民黨은 오는21일열리는 제40회 정기당대회에서 채택할금년도 당운동방침을 통해 일본이 소련의 군사력증강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기에 이르렀음을 선언하고 일본국민의 방위의식고취및 필요한 방위력정비를 최중점 해결사항으로 전면에 내세울 방침으로 있어 크게 주목을끌고있다。

自民黨은 14일 당간부회의및 총무회에서 승인된 이 운동방침에서『일본이 특히 경계를해야하는것은 소련군사력의 경이적 증대』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처하기위해서는 美·日안보조약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일본의 자유와 평화를 스스로의 손으로 지킨다는 국민적의지를 먼저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운동방침은 특히 국민총생산(GNP) 1%이내라는 일본의 방위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어려운재정사정이라 할지라도 가능한한 방위력을 증강、국제적신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사실상 1%이상의 방위비 증액을 내세웠다。

알바니아 黨1書記 死亡說속 公席上에

【빈·런던14日AP·AFP=聯合】사망설이 나돌던 알바니아共産黨제1서기 엔베르·호자(73)가 14일 알바니아수도 티라나에서 소집된 알바니아인민의회(국회)에 출석、지난달18일 자살한것으로 전해진 메메트·세후수상(68)의 후임으로 아딜·카르카니제1부수상(60)을 임명했다고 오스트리아통신이 보도했다。

野1席에 執權黨 超非常

싱가포르人民行動黨 16년만에 첫敗北

보궐선거서 勞動黨제야라트남勝利에 李光耀"총력전" 지시

하기위한 총력전을 벌이고있다。

싱가포르의회의 총74석을 지난16년간 독점장악해왔던 PAP가 지난10월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노동당의 제야라트남씨(55·변호사)에게 패배、1석을 빼앗긴것이 큰충격파를 일으키고있다。

노동당지지자들은 이번 승리를싱가포르정치사의신기원으로 선언하고 있는반면 李수상측은 야당종말의 시작일뿐이라고 호언하고있다。

李수상은 입법 활동에 거추장스러운 여합박에 못하는 야당이 현정권의 원만한 진로를 뒤엎고 정적 불안을 야기해 보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李수상은신임내어 대통령과 패배한 안소선거구 PA P당원들에게 이번 노동당의 승리는 84년에 있을 차기총선에 교훈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뿐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PAP고위인사들도 이번보궐선거결과는 싱가포르정치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지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시위적인 태도와는 달리 PAP는 유일한 야당의원인 제야라트남씨가 여당에 전면적인 도전을 할수없도록 자금과 인력확보의 줄을 끊어놓기 위해 거대한 정치기구를 동원할 정도로 민감히 반응하고있다。

제야라트남의원은 PAP정권이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철저히 봉쇄하고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안손선거구의 매주 집회는 정부지원단체인 주민협회건물아래 공지에서 있어서의 야당역할을 토의하자고 제의했으나 거절됐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청렴정부를 영도해왔다고 자부하는 李수상은 선거에서 경찰력을사용했다는 제야라트남의원의 의회연설을 반박、진상을 가리기위한 조사위를구성하자고 제의하고 제야라트남의원을『위선자』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死亡77명 公式발표

美여객기 추락사고

【워싱턴14日UPI=聯合】지난13일 워싱턴의 포토맥강에 추락한 미에어·플로리다항공소속의 여객기사고로인한 사망자수는 하오현재77명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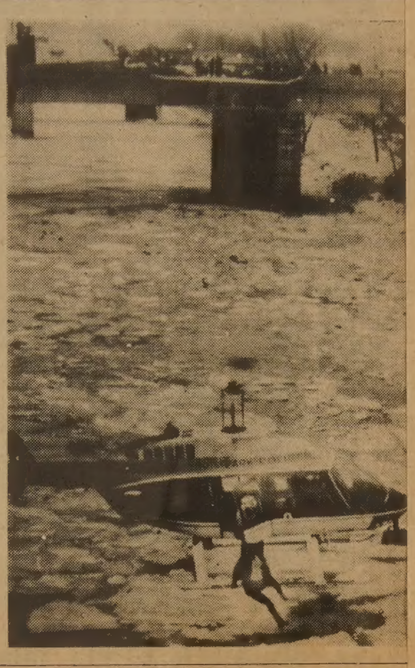
앞서 사망자는 76명으로보도됐었으나 사고여객기가 포토맥강 14번가교를 스쳤을때 부상당한1명이숨져 1명이 추가됐다고 조지·워싱턴병원당국이 발표했다。

安全度 가장높아 추락機보잉737

【시애틀14日UPI=聯合】13일 워싱턴국제공항을 이륙한직후 워싱턴시 포토맥강에 추락한 보잉737여객기는 항공업계에서 가장양호한 안전기록을 갖고있는 여객기중의하나라고 보잉社간부들이 말했다。

보잉사는 지난1968년 2월 처음으로 이단거리여객기를 선보인이래 8백13대를 인도했으며 최초의 구입항공사는 서독의 루프트한자였다。

고든·윌리엄즈 보잉사대변인은 포토맥강에 추락한 에어·플로리다항공사소속 보잉737기는 취항중 사고를 일으킨 15번째의 보잉737여객기라고 말했다。



◇구조된 英대처首相아들 파리—대카르間 자동차경주대회출전중 실종됐다 구조된 마거리트·대처英國수상의 아들 마크·대처군(28·右)이 지난1일 파리출발전 동승선수인 샤를로트·베르네이양과함께 그들의 자동차위에 올라앉아 포즈를 취하고있는 모습。【파리14日AP합=聯合】

失踪전의 마크대처 파리(프랑스)—다카르(세네갈)間 사하라사막 횡단자동차경주대회에 출전중 동료2명과함께 실종됐다가 6일만에 무사히 구조된 대처英國수상의 아들 마크·대처군(28·左)의 실종전 모습。오른쪽 여인은 동승했던 동료경주자인 프랑스인 샤를로트·베르네이양。【UPI】

"蘇블록과 修交용의"

사우디、美의 對「골란高原합병」태도 失望

【베이루트15日AP·聯合=特約】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에 대해 미국이 별다른 행동을취하지않고 있는데 실망、소련블록과 전반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용의가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서방소식통들은 이같은 시사가 전통적으로 反蘇的이었던 사우디의 여론을 동구권과 유대를 맺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한편 레이건美행정부에 대해 경고를 보낸다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우디공보상 모하마드·압둘·야마니는 이번 주초 리야드에서 열렸던 한세미나에서 동구권과의 외교관계수립이 그들의 이데올로기를인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소련과의 유대강화를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소련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수립에대한 시사는 작년12월14일이스라엘이골란고원에 自國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후부터 나오기시작했다。

사우디의 파드황태자는 금년1월1일 신년메시지를통해 공산주의국가가 지니고있는 국제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우디는 동구권국가들과 반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波自由勞組 地下운동시작

"2만여명 이미잠입"

【바르샤바14日AFP=聯合】자유노조지도자를 자처하는 2명이 폴란드에 계엄령이 선포된지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바르샤바교외에서 열린『地下비밀자유노조』회담장에서 서방세계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자유노조원2만여명이 지하로 잠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2명은『지하비밀자유노조』의 주요목표가 체포당한 자유노조원들을 지원하고 공장내의 작업을 지연시키는『소극적인 저항』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波에 첫爆發物테러

【바르샤바14日UPI·聯合=聯合】폴란드 共産黨본부건물부근에서 14일 폭발물이 터져 자동차 2대와 인근건물의 유리창문등이 파괴됨으로써 계엄령선포후 최초의 폭발물테러사건이 발생했다고 폴란드의 관영 P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메아리

機密누설

한모임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이어 軍事분야의「機密」을 보도한데 있다。하나는 臺灣에대해 미국이 FX機같은 고성능전투기는 판매치 않으나 F5E따위「계약중」인 전투기와 부속품은 계속 판매하기로 정책을 세웠다는 내용이다。기사에서「전투기 판매중지」만 보도해 주었으면 中共측과의「양해」로 이번美·中共관계의 고비를 넘길수 있었는데 다른 武器를팔기로 하였다고 公開함으로써 北京측「멘츠」를건드려 결과적으로 일이 뒤틀리게 되었다는것이다。

또 하나는 역시 워싱턴·포스트가 지난8일의 1면記事로 국방고위참모회의인「방위물자위원회」에 배부된「비밀보고」를 취재、보도 함으로 국가안보에「害가 될지 모를」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후자의 사건내용은 대통령지시로 소집된 방위물자위원회에 배포된「국방물자계획과 戰略과의 부합」문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폭로한것이다。

고서가 지적했다고 보도한것이다。보도記者는 同紙의 노련한 조지·C·윌슨。

레이건대통령이「강력한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쏟는 정열은 대단하다。팽창하고있는 소련의 軍事力을 누르기위해 다른분야서는 減稅나削減을 할지라도 국방예산만은 더 늘린다는 자세이다。하나 정열은 좋지만 문제는「돈」이다。

1조5천억달러라는 예산규모도 엄청난데 이것마저「非現實的」인것이며 레이건의「戰略」에는 미치지못하는 액수라는점이 드러난데 문제가있다。그렇지 않아도 요즘 美國議會서는 레이건이구상한 海軍力증강계획에 비판의소리가높아 困境에빠져있는 판이다。

이통에 누가 그런 국방기밀을 누설했느냐하여 그 진원을 캐는한편 보안조치를 더 단단히 하여 취재기자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고 있다는데、이번 보도가 과연 누설되어서 안될「기밀」이었던가여부는 두고두고 논란될기세이다。전략과 예산과 그리고기밀、이것이 서로「부합」되는것인가 하여—。

海外토픽

性전환 두아를낳아

★이스라엘女人、史上첫기록

남녀양성의 생식기를 달고 태어났던 금년27세의 이스라엘 여성이 어려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성수술을 받고 20세에 결혼한후 남편몰래 임신을 위해 호르몬치료를 받은뒤 제왕절개수술로 3살과 생후2개월된 두 사내아이를 낳는 의학사상 전례없는 기록을 남겼다。이 여인은 16살때 성전환수술을 받고 남편한테는 이 사실을 숨긴채 시집을 갔다는것。

이 여인의 출산을 맡았던 의사는『성전환수술을 받은 여인이 출산한 경우가 없는것은 아닐것이다。이번과같이 두아이를 낳을수 있다는 것은 의료사상 처음 보는일』이라고 지적했다。【텔아비브=UPI】

通禁실시 出産급증

★오트볼타、옷가게등盛業

오트볼타의 81년 출생률이 지난80년11월의 쿠데타에 따른 통금실시결과 8%나 급증했다고 오트볼타관영 캐리퍼·애프리캐인지가 보도했다。

오트볼타의 부인들은 남편들보다 통금을 더즐긴 결과

暴走기차도 멈추게

★美、새多用途금속開發

미해군의 무기과학자들은 치아를 교정하는 일에서부터 폭주하는 기차를 멈출수도있는 다양한 용도의 금속을 개발했다。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인 니티놀 이라는 이 금속은 어떤 특정한 형태를 기억하고있다가 가열시켜 활성화되면 그 형태로 환원된다는것。이를 개발한 과학자들은 니티놀을 선박과 항공기의 배관공사등 방위산업과 민간산업에 활용할것으로 기대。

한편 니티놀로 만든 치열교정기는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환자를 덜 고통스럽게하며 이를 이용해 질주하는 기차를 세울수도 있다는것。【워싱턴=UPI】

가 되었는데 특히 부인을 여렸던 남편들은 결혼생활의 현실을 피할수 없다는것。

유아의류가게와 결혼예복상점들은 성업을이뤄 통금실시에 가장 큰 덕을 본셈이라고 즐거워했다。【와가두구=AFP】

2次戰소재 美術展

蘇、平壤서

【서울=外】蘇聯은 2차세계대전당시 蘇聯의 對獨戰상황을 소재로한 그들「중앙혁명박물관」소장의 美術작품

外信안테나

◆美고위층 곧中東재순방

알렉산더·헤이그 美국무장관은 14일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과 2시간여 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를 논의한뒤 그자신이나 다른고위급 美정부대표가 팔레스타인 자치문제에 관한 합의를 모색키위해 앞으로 조속한시일내에 재차 中東을 방문할것이라고 말했다。【예루살렘=AP】

◆波拘禁者 1천56명釋放

폴란드의 계엄령선포이래

구금되었던 5천9백6명가운데 모두1천56명이 석방되었다고 폴란드 정부대변인예르지·우르반이 14일 발표했다。

또한 계엄령이후 폐쇄되었던 극장들도 다시 문을 열어 드라마티츠니 극장에서는 비톨드·곰브로비츠의 작품에 이어 슬라보미르·므로체크의「도보통행자」를 공연할 예정이다。【바르샤바=AP】

전람회를 15일부터 平壤에서 개최하고있다고 관영모스크바放送이 보도했다。

蘇·北傀간의「文化협조계획」에의거 전시되고있는 이전람회에는 2차대전중 蘇聯의 對獨戰당시 종군화가들인 레니카、게나시모、브로그로프와 모체치는등의 회화및 조각작품 1백40점을 비롯해 1백20점에 달한다。

◇美최초의 시험관아기 美최초의 시험관아기 엘리자베드·카(女)가 14일 버지니아州 노퍼크의 병원에서 출산직후 진찰을 받고있는모습。이사진은 오는 17일 방영될 TV쇼프로용으로 찍은것이다。【노퍼크(美캘리포니아州) 14日AP합=聯合】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 (416)533·2361

교회안내

하나님의 축복이 금년에도 귀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비옵니다 전토론토 한인교회(TORONTO METRO UNITED CHURCH)교인이었던 저희들은 임시로 KINGSTON UNITED CHURCH를 빌려서 계속하여 예배드리고 있음을 교포제위에게 알려 드리오며 전과 같이 저희들을 아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앙망 하나이다.

교 회 명 : 한인교회(HAN IN UNITED CHURCH)
장 소 : 975 KINGSTON RD. (빅토리아·파크에서 2 BLOCK 서쪽))
예배시간 : 주일오후 1시30분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특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네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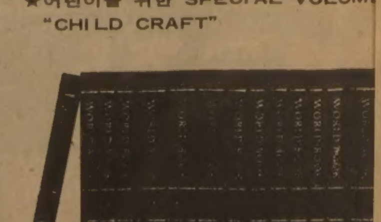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WORLD BOOK
CHILDCRAFT OF CANA

아직도 WORLD BOOK을 구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 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 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일하며 생각하며

年初에 날아온 「通禁해제」…이젠 「밤公演自由」찾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각자의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어느날 우주 한구석으로부터 여행을 시작하여 항상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을 계속하게 된다。작년에 나는 무용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었다。공항을 떠나던날 나는 도리스·험프리의 「타임」이라는 작품을 떠올렸고 그의 춤처럼 지나가는 순간을 충실히, 그리고 수용하는 자세로 보내리라고 다짐했었다。

문예진흥원이 후원하는 1980년도 무용연수자로 뽑혀 뉴욕에 도착했던것은 몹시 추웠던 겨울 어느날이다。

공항에서 선배언니의 반가운 얼굴을 대했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시간이었다。

서로의 반가움을 달랠길없어 밤새 거리를 드라이브하며 몇군데의 코피숍을 전전했는지…。

그날이후 뉴욕의 밤은 여전히 자유로왔고, 수많은 공연이 열렸고, 공연후 친구들과의 만남은 잊을수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곤 했다。

그렇게 즐길때면 한국의 친구들이 생각났었고 「통행금지」때문에 한창 열이오르는 연습을 중단해야했던 아쉬웠던 시간들이 떠오르곤 했었다。언제부터 인지「통행금지」라는 틀속에 갇혀살아온 우리모두의 모습이 한국을 멀리 떠난 곳에서 뚜렷이 떠올랐고 그렇게뒷맛이 씁쓸 할수가 없었다。

어느날 우연히 한국 식품점에서 신문을 얻어읽고있는데 큰활자로 「통금해제」라는단어를보았을때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우리도 뉴욕의 극장들처럼 시간의제약없이 자유로운 밤공연을 가질수있으며 통금에 쫓기지않고 무대의감동을 나눌수 있다니 얼마나 꿈같은일인가。

물론 뉴욕의밤은 범죄들이 들끓는, 인간이 사는곳중에서 가장 최악의도시이며, 자정이 넘으면 지하철도 자주 다니지않고 지하철속사람들의 표정도 별로 유쾌하지는 못하다。그러나 이도시에선 무수한 밤공연이 행해지고, 곳곳에서 예술가들이 창작의밤을 지새우고 있는것이다。

나는 거의 날마다 밤공연의 관객으로, 그리고 공연자들의 따뜻한 벗으로 많은 공연을 구경하곤했다。

무대가큰 「시티·센터」 「스페이스」 「링컨센터」로부터 무대가 협소한 빌리지쪽의 구석구석까지 무용을 한다는 곳이면 어디고 찾아가 그들과 즐기곤했다。

나는 큰무대도 좋았지만 젊은이들이 모여 만든 작은무대를 더욱 좋아 하게 되었다。그들은 자유스러웠고 또한 진지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것을다해 열심히 무대를 꾸몄으며 어느누구의 비관도 감수할줄아는 전강함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후에야 자신의 작품세계를 이루는 노력을 시작하게된다。

대학측이 좀더 관대한 마음을 갖는다면, 대학재학시부터 자신의 작품세계를 발표할수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할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미국의 현대무용계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기에 화려한 꽃이피고 또 무척 기대되는 분야이기도하다。

우리나라의 현대무용분야는 고전테크닉으로알려진 마더·그레이엄 테크닉이 이미 보급되었기 때문에 세계와 발을 맞춰 튼튼히 뿌리내릴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여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젊은세대의 자유정신인것같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 스스로 찾아내고 탐구해야할 필연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뉴욕에서 밤마다 매번 다른공연을 감상한후가끔 우울해졌던적이 있었다。지난 여러해동안 열심히 추구했던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신에 대한 감정이었으리라 생각되어진다。

그런날밤엔 아파트로 돌아와 차한잔을 마시며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러는동안 나자신을 용서할수 있었다。

金 慶 玉
<현대무용가·梨大강사>

내가 뉴욕에서 만난 댄서들은 그리 넉넉지못한 생활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즐기고있는 친구들이었다。나는 그들과 함께 여러종류의 테크닉을 익혔으며 대화를 나눌수 있었다。

그들은 거의 20세정도의 젊은이들이었다。그들은 어느무용단에든지 들어가기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항상 오디션을 보고, 또한 하루를 쪼개어서 일을 해야만 빵과 코피를 먹을수 있었다。

그들은 바쁘고, 힘들고, 가난했다。하나 그들은 날마다 명랑했고 그들의 정신은 신선함과 강렬함으로 가득차 있었다。

요즈음 차츰 그들이 그리워질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기시작한다。

아무도 들을수없게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다보면 저절로 몸이 흔들려지고 춤을 추게 될거라고 망상을 하면서…。

우리도 새해부터 통금이 없어졌다。그리고 중고생의 교복과 머리형의 자율화등 몇가지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알게 모르게 우리를 죄어온 수많은 제한, 우리의 의식을 가둬온 不自由의 틀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된다면 다음 世代는 좀더 예술다운 예술을 할수있을것이며 人生과 예술에서 가장 소중한것은 바로 自由라는것도 깨닫게 될것이다。멀리 뉴욕에서 통금을 생각하며느꼈던 씁쓸함이 어느정도 풀리는 기분이다。

글을 쓴다는게 즐겁고 活字化될땐 더욱 흐뭇

主婦의 한때

—보람을 찾는「나만의 시간」—

18년간 本紙에 투고해온 崔敬喜씨

自然·주변의 일상生活 素材로
가슴속 感情의 빛깔·무늬 表現

◇집안일을 하면서, 손녀딸의 편지를 읽으며, 또 버스를타면서 언제나 글의 素材를 만난다는 글쓰는 주부 崔敬喜씨。

崔敬喜씨(54·서울西大門區 弘恩3洞409의38)는 글 쓰는일을 생활에서 가장 귀한 때로 삼는다。그는 지리하기쉬운 가정생활에서 기분을 바꾸는 한 방편으로 글 쓰는 즐거움을 택하고 있다。

「글 쓰는 재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64년 한국일보 독자투고란 「女子의 마음」에 저의 글이 실린 뒤부터였어요。남들이 생각할때 「그까짓 작은글이 실린것이 뭐기에…」하겠지만 저에겐 그렇게 큰힘이 될수가 없었어요。그후 「女苑」의 手記모집에도 투고하여 두번이나 입선했고, 한국일보 「女子의 마음」에도 18년간 주욱 투고해 1년에 1편꼴로 실려왔어요」

그가 처음 한국일보 「女子의 마음」과 인연을 맺었던 글은 「돈 나무를 심은 어린 딸」이었다。그는 당시 고교교사였던 남편을 따라 江原道 洪川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살았던집은 산속 동네중에서도 깊숙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 절간처럼 조용하고 한가했다。솔 바람소리, 새 소리만 들려오고 밤이면 먼데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까지 들려오는 곳이었다。그토록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서 自然과 어울리며 지내는동안 그의 머리속에서는 나무들을 노래하는 귀절이 떠오르고 시냇물가락을 묘사하는 단어가 떠오르곤 했다。

「누구든 다 그런 시골에 살면 글이나 詩를 쓸수밖에 없을거예요。그곳 생활이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만일 도시에서만 살았다면 이제까지 글을 쓰는 일은 정말 없었을거예요。「돈 나무를 심은어린 딸」은 당시 4살이었던 우리 딸이 고추 감자등 뭐든지 심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보고 동전을 밭에 심고 돈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우스운 일을 쓴 것이었어요。뭐든지 심으면 거둘수 있는줄 알고 엄마 몰래 동전을 심었던 것이지요」

깊은 두메산골에서 써보낸글이 신문에 나오자 그는 너무나 기뻐서 『계속 글을써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읍내 책방과 계약을 맺어 책을 빌어보며 지식을 넓히고 문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소설책, 역사책, 동화책등을 하루에 5원씩 주고 빌어다가 읽어 몇개월만에 읍내 책방의 책을 거의 다 읽어봤다。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어서 밤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읽거나, 이불속에 들어가서 손전등을 비추며 읽었다。日帝시대에 群山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말 맞춤법을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던 그는 이같은 맹렬한 독서를 통해 맞춤법등을 정확히 익혔다。

『그 시골을 떠나 春川으로 나와 살게된후에도 여전히 글을 써서 「女子의 마음」에 투고했지요。「江原日報」에는 詩를 써보내어 몇번실리기도 하구요。그러나 여기저기 이름나오는 것이 좋지 않게 느껴져서 쓴 글을 대부분 모아 놓고 투고는 적당히 하고 있어요。글을 쓰는 것이 그냥 재미있고 즐거워서 쓸뿐, 그밖에 목적이 있어서 쓰는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자신이 쓴글을 「作品」이라고 생각한적은 거의없다。다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이야기를 옮겨놓은 하나의 단상이고, 자신의 가슴속에 괴는 갖가지 감정의 무늬와 빛깔을 좀더 승화된 것으로 이끄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한다。이때문에 모든것에서 글의 소재가 나타나 집안일을 하다가, 여섯살 짜리 손녀 딸이 보낸 예쁜 問安편지를보면서, 또는 버스를 타고있는 동안에도 쓸만한 이야기를 만나곤 한다。

그는 글이 발표된 다음에는 전국각지에서 많은 편지들을 받는다。글가운데 나이가 밝혀지지 않기때문에 미혼여성으로오해돼서 펜·팔을 요청하는 젊은

실린 글 읽은讀者 未婚여성으로 오해…求婚받기도

남성들이 적지 않아 미소짓게 하기도한다。

지난해 봄에 「女子의 마음」에 투고해서 실렸던 「빈 화장품병에 대한 생각」을 읽은 在美동포 청년 한명은 그를 「미스·崔」라고 부르며, 사진, 생년월일, 신장, 체중, 취미를모두 적은 편지를 보내 교제를요청해 왔다고한다。그 청년이 손녀 딸까지 둔 할머니를 미스·崔라고 부르며 교제를 요청한 편지를 읽고 그는 너무나 우스워서 배를 잡고 웃었으나, 왠지 그 청년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늙어가지고 주착을 부린다고 하지만 글 쓰는 일이 재미나고, 또 가끔씩 제 글이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서 며칠동안 흐뭇하게 지낼수 있어요。특히 남편은 수년전부터 江原道 旌善여자중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떨어져 살고 있어요。제가 만일 글을 쓰지 않고 살아왔다면 아마 그 남는 시간을 쓰임새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지리하기만 했을거예요。그리고 글 쓰기에 재미를 붙이다보면 자연히 남의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살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된답니다」

그는 잠자리 머리맡에 꼭 한권의 책을놓고 자는 습관이 있다。많은 독서인들이 베드사이드·북을 한권씩 놓아 읽고 자듯, 그도 읽고있는책을 잠자리가에 두어 자기전까지 읽곤 한다。그는 또 해마다 이때쯤엔 新春文藝당선작품들을 읽으며 묘한기분이 되기도한다。자신의 능력이 『신춘문예에 당선될만큼은 되지않는다』고 판단되어 투고를해본일은 한번도없었지만 당선작품을 읽고있으면 약간 부럽고 조금 속상하는 때가있다고 고백한다。그러나 글 쓰는것에 어떤목적을 걸고있지않고 단지 자기 자신을 表出해보는것에서 스스로 自足하는것이므로 그이상의 욕심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지금까지 스크랩해 놓은 글과 원고로 모아놓은 斷想들은 몇권의책으로묶을만큼 양이많다。그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回甲이되면 회갑기념으로 좋은 글을 추려서 한권의책으로 엮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한다。

【禹桂淑기자】

美天才교육에 높은관심

일반학생들과 분리 特殊교육
國校生대상…知能경연대회도
일부선 "엘리트養成"이다反撥

◇天才어린이들은 특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게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카고의 일렌·오·굿로 국민학교 특수반 1학년 학생들은 3학년수준의 공부를 하고있으며 노던이스턴·일리노이대학교 특수반에서는 12세의 8학년학생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중급대수를 단 한번만의 강의로 완전히 숙달하고있다。이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약 2백50만명의 천재학생들가운데 일부일뿐이다。어렸을때부터 학교공부와 예능방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보이거나 놀라운 지도력을 보이는 천재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점점 증가하고있다。

교육자들 가운데는 학교가 천재학생들과 보통학생들에게 모두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있기 때문에 천재학생들이 흥미를잃고 낙오자가 되거나 문제학생으로 전락한다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이들은 천재학생들이 미국의 전학생인구의 3%내지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재능을 무시하는 교육은 미국사회가 개선에 공헌할수있는 인간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5명의 자녀가 모두 천재학생들인 뉴올리안즈의 한학부형은 학교선생조차 자신의 아이들이 교실에서 우두커니 졸기만하는 이유를 맨처음에 알지못했다고 불평을 털어놓는다。

천재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은 최근에 들어 줄었다。미전역에 걸쳐 천재교육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

작년에 로스앤젤레스주 정부당국은 천재교육프로그램에 1억2천5백만달러를 소비했다。전체교육예산에비하면 보잘것 없는 소액이지만 1972년도 천재교육예산보다 7배나많은 금액이다。연방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학교당국에의해천재로인정된 학생가운데 35%가 현재일종의 천재교육을 받고있다。이는 1972년도의 4%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것이다。정부당국뿐아니라 일반단체들도 천재교육에대한 관심을 높이고있다。「전국천재교육후원회」는최근에 설립된 천재교육후원단체이다。설립멤버 가운데는 유명한 모델섬유회사와 유아용품회사인 프록터·앤드·갬블회사가 끼어있다。

그러나 천재교육은 아직도 예산삭감의 좋은 이유가 되고있다。미시간, 오리건, 워싱턴등 3개주는 최근에 천재교육예산을 삭감했으며 연방정부는 1982회계연도 예산에서 작년에 천재교육보조금으로 주정부에 지불했던 5백70만달러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있다。

천재교육운동이 재개된것은 지난1970년대초이다。소위『마랜드 보고서』로 알려진 1972년도의 연구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천재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하지 않으면 이들천재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손상을 입을 정도로 재능에 영구적 손상을 입을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미국에는 현재 『지능올림픽대회』라고 불리는 전국적 천재학생 경연대회까지 생겼다。작년에 이대회에 참가한 학교수는 1천개가 넘는다。

한 경연대회의 과제는 1온스의 아주 가벼운 벽오동나무로 수백파운드의 무게를 지탱할수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대회에 참가했던 한팀은 최고7백68파운드의 무게를 지탱시키는 구조를 창안했다。

【한국일보LA지사】

바쁘고 活潑해질 女性界

올해 각 여성단체의 新年設計

서울서 世界여성團協총회
YW聯 창립60周기념제도

◇鄭忠良씨 ◇李兌榮씨 ◇孫仁實씨 ◇李淑鍾씨
◇金文姬씨 ◇朴金淳씨 ◇李潤子씨 ◇朴貞子씨

82년의 여성계는 어느해보다 바쁜한해가 될듯하다。세계여성단체협의회총회가 오는9월 서울에서 열리고, YWCA는 창립6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가 밝힌 여성정책자문위 신설과 가족법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질것이다。각 여성단체의 신년설계를 들어본다。

○○○○○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李淑鍾)

9월20일~10월1일까지서울에서 열릴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제23차총회 준비로 바쁜날을 보내고 있다。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각분과별로 구체적인준비에 착수했다。

95년의 오랜전통을 가진 ICW는 75개국 여성단체협의회가 가입하고있는 세계최대의 여성기구로 3년에 한번씩 열리는 ICW총회는 「여성의 UN총회」라고 불리기도한다。「세계경제위기에 있어서의 국제개발전략과 여성」을 주제로한 이번 서울대회에는 1천여명의 세계여성지도자들이 참가하며 프랑스의시몬·베이유등 有名女流들도 참가할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금년에 치를 또한가지 큰일은 임원개선。李淑鍾회장의 사퇴로 임시회장직을 맡아온 李淑鍾회장의 후임등 임원선출이 집중되고 있다。

YWCA연합회 (회장 朴仁實)

창립60주년을맞는 YWCA연합회는 회갑기념으로 여러가지 행사를 마련하고있다。4월초에는 기념엽서, 회보가 발행되고 기념전시회, 자료전시회, 사진전시회, 세계YWCA발표등을 계획하고있다。또한 19개지방Y와 회원들이 대거 참가하는 합창대회를 4월2일에 개최, 잔치분위기를 북돋우게된다。

계속사업으로는 여성의 직업개발, 어린이 복지향상, 소비자보호운동, 청소년운동, 가족법개정운동, 장애자보호사업등을 추진하고 3월중순에는 앞으로 3년간의 YWCA 활동방향을 결정짓는 28회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李兌榮)

81년에 창립25주년을 맞았던 가정법률상담소는 올해에 국내·외 支部설치, 평생회원모집, 「가정학당」신설, 가족법개정운동등을 추진하게된다。가족법개정운동을 위한 계몽과 國會청원등을 계획하고있으며 현재의 「어머니학교」를 확장하여 아버지와 남편들도 행복한 가정의 구성원이될수있는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가정학당」신설을 준비하고있다。또한 老人문제해결을 돕기위해 노인상담을 시작하고 이혼가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朴貞子)

30주년을 맞는 여성문제연구회는 「30~40代주부들의 의식구조조사」를 실시, 중년여성의 문제와 그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金文姬)

근로여성의 의식화와 건전한 労使관계 확립을 돕기위해 「근로여성대학」을 개설한다。

한국부인회 (회장 朴金淳)

모·노인·근로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1년계획으로 준비중이며 6월경에는 미국에서 韓·美수교1백주년으로 민속문화세미나와 궁중요리전시회를 갖는다。소비자보호운동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韓·日소비자세미나, 아시아·태평양지역소비자세미나등을 서울에서 열계획이다。

주부교실중앙회 (회장 李潤子)

소비자보호운동·질서바로세우기운동·사회정화운동·주부의 의식개조운동등 5개 지표를 설정하여 올해 1년동안 추진하게 된다。

주부클럽연합회 (회장 鄭忠良)

「任意學校」를 개설, 주부들을 대상으로한 취미·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소비자교육·상품테스트·물가조사등으로 소비자보호운동을 계속하게 된다。【秀】

經濟短信

▲稅關管理者의 行動綱領제정=관세청은 1천억달러 통관시대에 대비한 세관공무원의 전문화와 자질향상책의 하나로 稅關管理者의 행동강령을 제정。

▲韓國關稅士會會長에 趙植元씨=韓國關稅士會는 14일 常勤會長에 趙植元씨를 선출。

▲겨울농민대학 4일개강=전국 농업기술자협회는 2월4일부터 12일까지 전국대에서 겨울 농민대학을 개강。

▲럭키, 西獨기술제휴로 피부보호제생산=럭키(주)는 西獨바이에르도르프社 기술제휴로 세계유명상표인 니베아 피부보호제를 기존제품의 절반 가격으로 시판。

▲金湖電氣사장에 金榮培씨=錦湖電機는 최근 이사회에서 金榮培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正友開發사장에 安榮承씨=正友開發은 최근 이사회에서 安榮承씨를 대표이사사장으로 선임。

女性界소식

기술교육 훈련생 YWCA서 모집

서울YWCA 근로여성회관은 고졸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사, 건축설계제도사, 귀금속(칠보·판금·세공)등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훈련기간은 6개월이며 회비는 피부관리사 4만원, 건축제도 4만5천원, 귀금속5만원。문의전화 ⑱8353。

教師·타자수등모집 서울YWCA

서울YWCA는 청년부간사, 야간국교교사, 타자수등 직원을 모집한다。자격은 청년부간사는 대학졸업자, 야간국교교사는 교사자격증이 있는 여성, 타자수는표준타2급수준의 여성。문의⑫5725

서예가 呂元九씨 書室「養素軒」열어

서예가 丘堂 呂元九씨가 종로구 소격동55번지 대도빌딩5-1-2호에 書室「養素軒」을 열어 16일하오 1시오프닝·파티를 갖는다。(⑬0315)

장로회 女信徒會서 탁아소보모등 教育

基長 여신도전국연합회는 18~22일까지 유치원 탁아소 보모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대상으로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장소는 서울永東에있는 성결교회관。

女性교육 세미나 18일~20일까지

전국여성교육세미나가 18일~20일 대한여성교육동지회 주최로 온양여고강당에서 열린다。주제강연은 「여성교육과 국민윤리교육」(金泰吉교수) 「청소년에게 가치관을」(최창규의원) 등이다。

건강교실 회원모집

YMCA 영동지회 건강교실은 2월 한달동안 매일 새벽6시~7시에 조깅, 수영으로 몸을 단련할 남녀회원을 모집하고있다。대상은 잠실지역 주민。문의전화㉒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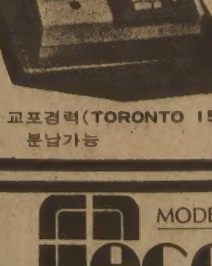
主婦대상 英語특강 주부클럽 연합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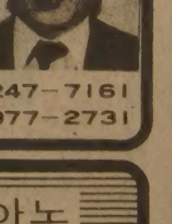
주부클럽연합회는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위한 중학영어특강을 18일~22일 새로나백화점6층에서 갖는다。문의 전화⑬4227

YMCA 국교생에 스케이트캠프열어

YMCA는 제1회 어린이스케이트캠프를 21일~24일 산정호수에서 연다。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이상의 어린이。선착순 1백명 마감。(㉒09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가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市內버스 共同관리·運營확대

交通部 配車서 經營까지 과당競爭등 막게

학생등에 定期승차券制 1~6개월
서비스優秀社 대폭支援 大單位社로
大邱등 8都市 부분實施中

시내버스공동관리 운영제가 서울을 비롯한 釜山、仁川등 대도시로 확대실시되며 시내버스의 정기승차권제도가 확립된다。또 전국의 택시와 버스회사가 운메 서비스등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발、행정지원을 통해 운수업체를 대단위화시킨다。교통부는 15일 이같은내용을 골자로한「대중교통수단인 택시·버스운영종합 개선방안」을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확정할방침이다。

黃金노선 交代운행·共同배차·決算

시내버스공동관리운영제는 KAIST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빠르면 금년하반기부터 실시하며 정기승차권제는 공동관리운영제가 확정된 지역에서 실시하며 우수업체지정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내버스회사의 수익노선·비수익노선을 둘러싼 과당경쟁、추월、배차시간불규칙、사고다발、러시아워 승차난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질서를 바로잡아 서비스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교통부가 마련한 대중교통운영개선방안은 다음과같다。

시내버스노선공동관리운영제

현재 大田 全州 水原 大邱 光州 馬山 鎭海 昌原등 8개 도시에서 노선별공동배차 관리등 부분적으로 실시하고있는것을 서울 釜山 仁川등으로 확대실시한다。

버스회사들끼리 지역별 노선공동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황금노선과 비수익노선을 교대로운행하고 배차시간 서비스관리에서 수입금등 회사경영에 이르기까지 공동관리 위원회에서 집행한다。특히 운행노선 배차표등 1년간의 계획표를 미리만들어 이 계획에따라 운영해나가며 노선의 직선화및 지하철등과의 연계수송체제를 확립해나간다。

이같은 제도가 실시되면 업체간의 수익이 평준화돼 과당경쟁으로 인한 배차시간불균형、추월경쟁、사고다발등을 줄일수 있으며 승객들에게 서비스개선을 기할수 있다。교통부당국자는 서울시내의경우 노선권을 둘러싼 쟁이 치열해 KAIST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현재 실시중인 8개 대도시에서도 수입금공동관리등 완전한형태의 공동관리제로 바꾸도록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90개업체에 7천9백70대의 버스가 3백50개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67개업체에 2천67대가 1백50개노선에 운행중이다。

정기승차권제

러시아워때 시내버스안내양들의 현금징수에따른 정차지연등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1개월~6개월짜리 정기승차권제를 실시한다。

버스노선공동관리위원회나 버스조합 각교통에서 발행할 정기승차권에는 본인의사진과 노선을 표시、해당노선에서만 이용할수있도록한다。

요금은 1일2회왕복 한달25일기준으로 현행요금을 합산하여받고 장기간에따른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정기승차권발행에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기위해 중·고교·대학별로 공동구입할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금、토큰·회수권은 앞으로도 계속 병행사용된다。

우수업체지정

오는 3월부터 실시된다。전국의 택시·버스회사중 경영상태가 우수하고 승객서비스등에서 지실한 회사를 우수업체로 지정、집중적인 행정특혜를 주어 대단위화하고 부실한영세업체는 행정지원에서제외、자연도태시킨다。

우수업체의 지정은 각시도에서자체심사를통해 전체회사중 10%미만을 교통부에추천한다。교통부는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치안본부 서울시 각조합、교통전문가 언론계등으로구성된 우수업체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사와 현지조사를통해 분기마다 결정한다。

교통부가 마련한 우수업체 자격기준은▲완전직영형태▲운전사등 종업원의 고정월급제▲후생복지시설▲차량청결상태▲정비상태▲사고율이낮은업체이다。우수업체로 지정된 회사에는 증차등 인허우선권、세제금융보험료차등、해당회사취업운전사에 개인면허우선권 차량고유표시등 혜택을준다。

직행좌석버스

운전사들의 요금징수로인한안전운행과 시간지연등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3월부터 승차권제를 실시한다。종이로된승차권은 20장당 1장을 무료로주고 버스토큰판매소에서판매한다。

대도시의 승차난을 해소하기위해 현재25인승을 37~38인승 대형버스로 바꾸고 금년중에 7백56대를 증차한다。업체별로 보유대수의 30%를 예비차로 확보하여 출퇴근시간에 투입、승차난을 해소시킨다。차종도 냉방시설을 갖추는등 고급화하고 지역별 방향별 공동배차관리제를 실시한다。

택시요금

시간·거리병산제를 오는 3·4월께부터 부산에서 시범적으로실시한다。지방도시간의 승객수요에 따른 요금차등제를 실시하고 시골 구간의 할증요금제도 실시한다。

死後에 評價받는 伊화가 푸소

海外文化

위대한 예술가들이 생전에 그들의 진가를 인정받지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인정받으려 하지않아서라기 보다는 사람들의 안목이 깨나지 않아서였다。

이태리의 미술가 브라요·푸소(Brajo Fuso·1899~1980)는 세인의 평가를 완전히 외면한채 위대한 예술을 남긴점에서 특이한 케이스다。작년12월30일 그가 죽을때까지는 그의 예술세계를 까맣게 모르고있던 유럽의 미술계는 뒤늦게야 그의위대성에 감탄하고있다。

최근에 매스컴의 관심을모은 그의 예술은 규모가 클뿐아니라 기괴한점에서도 독보적이다。로마와 플로렌스의 사이에있는 그의집은 세상과 완전히 두절된 中世의 성채같은곳이었다。정원은 온통 조각의 숲을 이루고있으며그 사이사이로 회화와 浮彫、섬유로된 벽걸이장식、철제의입체작품및 건축물들이 수천점이나 들어서있다。

나무가지에 풍차같은 쇠붙이가 걸려있는가하면 석고로 짐승들의 머리를 빚어 놓은「브라조동물원의 동물들」이라는 조각작품은 괴기에 가깝다。이밖에 평면에 무수한 구멍이 뚫린 미술작품은 오늘날 흔히 볼수있는 전위미술과같다。또 정원에 세워둔 사람모습의 조각은 한국의 인형극을 연상케한다。

◇브라요·푸소

롯데호텔 別館에 불
消防車百7臺 投宿客 대피소동벌여
실내水泳場공사중 鎔接불꽃
소방道路에駐車·장애물많아

◇롯데호텔 별관4층 실내수영장에서 일어난 화재。연기가 치솟자 투숙객들이 놀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15일낮12시50분께 서울中區小公洞1 롯데호텔별관 4층 실내수영장에서불이나 내부 2백50평을 모두태워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불은 닥트(환기시설) 공 梁基善씨(24)와 姜相元씨(36)가 수영장천정의 닥트를 전기용접중 梁씨의용접기에서 튀어나온 불꽃이 바닥에있던 실내 도장용페인트에 떨어져 인화돼 일어났는데 소화기를 들이대자「펑」하면서 불길이 치솟았다。

내공부사중인 실내 수영장에는 설비공사를 맡은 三源설비와 내부장식공사를 맡은 동아인테리어인부등 1백여명이 공사중이었는데 불은 동아인테리어 도장공들이 페인트칠을 하기위해 신나와배합해놓은 페인트 20여통과천장에 붙은 합성수지등에 옮겨붙어 삽시간에 수영장내부전체로 번졌다。

불이나자 공사장 근처의인부들은 모두 대피했고 호텔측은 한국어 일어、영어로안내방송을해 시커먼연기에놀란 투숙객들을 진정시켜 큰 혼란은없었다。

그런데 이날불이 가장 번졌던 실내수영장건물 서쪽편에는 폭8m의 소방도로가 있으나 길한가운데에 19평7홉의 개인땅이 있어 소유주 尹明龍씨(78·서울永登浦區西橋洞368의11)가 서울시와 13년째 보상시비를 벌여오다 지난해11월 자갈을 쌓아놓는 바람에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애를 먹었다。

더구나 이도로는 백남빌딩과 롯데호텔사이의 노상주차장으로 변칙사용돼 주차시킨 운전기사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바람에 10여대의 승용차 끌어내는 소동을 빚었다。

低質炭사건 龍頭蛇尾格
業者3명 百50만원씩 罰金刑
서울 형사地法 "개인보다는 연탄회사 전체의 책임"

저질연탄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연탄업체 관계자3명이 기소1백일만인 15일 벌금1백50만원씩의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연탄업체관계자와함께 구속기소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실형에 추징금을 병과받은데비해 저질탄(버린)을 섞어 서민에게 불편을 줘왔던 연탄업체관계자들이 구속47일만에 보석으로 이미 풀려난데이어 이날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대조를이루었다。

서울형사지법 尹汝憲판사는 이날상오 저질연탄사건등으로 기소된 삼천리연탄상무 丁大稙(43)、삼표연탄대표 韓東鎭(60)、대성연탄상무 金恣鉉피고인(5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각각 벌금 1백5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이사건은 사회적으로 지탄을받아 마땅하지만 이들에대한 감독을 소홀히한 당국도 이들못지않게 책임이크다』고 지적하고『저질연탄을 제조한책임이 피고인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소속법인인 각연탄회사 전체의책임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만약 개인이 책임을져야한다면 당연히 회사대표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들은 연탄제조만 담당했을뿐 회사의대표가 아니기때문에 이들을 형사입건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였던것같다』고 밝히고『이사건이후 사회적관심이 높아져 연탄의 질이 좋아진것이사실이고 연탄업자들이 힘을합쳐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한점등을 감안、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업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4천3백70칼로리이하의 저질탄을제조 판매하고 당국에 열량을허위보고한 혐의로 작년10월8일에 구속기소됐으나 같은해 11월23일 보석으로 모두풀려난뒤 12월11일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1년6월씩을 구형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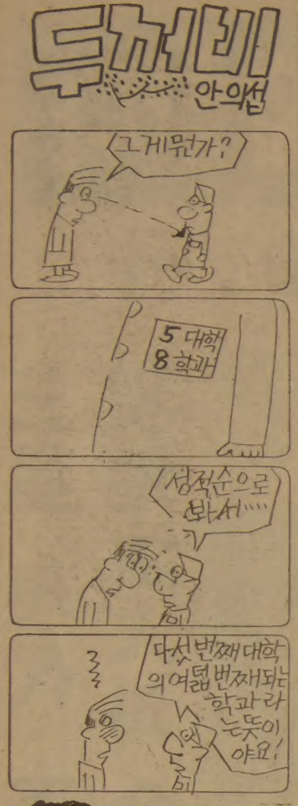
한편 저질탄사건으로 업자들과함께 구속기소됐던 전서울시산업국 연료과장 崔永珍피고인(46)과 전석공영업1과장 金供洙피고인(39)은 지난해 12월4일 선고공판에서 2명모두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의 실형과 2백만원및 1백65만원씩의 추징금을 병과받았으며 전동자부석탄광장 尹錫九피고인(47)은 현재 재판이진행중이다。

1만원券 變造사용 40代여인 拘束

【大田=駐】大田경찰서는15일 1만원권 지폐를 변조해쓴 朴貞淑여인(45·주거부정)을 통화변조혐의로 구속하고 변조된 1만원권 33장、5천원권 2장을 증거물로압수했다。

朴여인은 14일밤 11시40분께 大田市東區紫陽洞 동부시장에서 타고왔던 충남1바4601호 택시(운전사 李敏求·25)에서 내리면서 뒷면을 떼어내고 신문지를 붙인 1만원권 변조지폐를 요금으로 냈다가 운전사 李씨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朴여인을 검거한뒤 소지품을 조사、속옷에 숨겨두었던 변조지폐 35장을찾아내고 공범이 있는지도 캐고있다。



안내광고를 원하십니까

國校生2명협박"집에가 돈가져와라"渡江시켜
샛江 살얼음깨져 1명溺死
中學生차림 불량배들 手配

국민학교 3학년 어린이2명이 불량학생들에게 끌려가『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과 구타를당하고 살얼음이 낀 한강 샛강을 건너도록 강요당한 끝에 1명이 물속에 빠져숨졌다。

◇숨진鎔澈군

지난 13일 하오2시20분께 서울銅雀區鷺梁津洞 한국냉동주식회사앞 샛강에서 鄭鎭榮씨(46·海星운송주식회사 전무·서울永登浦區汝矣島洞 한양아파트D동208호)의 외아들 鎔澈군(11·汝矣島국교3년)이 살얼음이 낀 깊이 1·5m의 샛강 폐수속에 빠져 숨졌다。

숨진 鎔澈군은 이날하오1시30분께 학교친구 全永在군(11)과함께 집부근에서 놀다 汝矣島파출소앞 윤중제부근에서 만난 15~16세가량의 중학생차림 2명에게끌려가 살얼음이얼은 샛강으로 갔다。

불량학생들은『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차비가없으니 가진돈을 모두내놓으라』고 협박、鎔澈군이『돈이 없다』고 대답하자『집에 가서 어머니핸드백을 뒤져 5천원씩 꺼내오라』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는척 했다。

鎔澈군이『그런짓하면 어머니에게 혼이난다』고 대답하자 이들은『조그마한 놈들이 반말을한다』며 주먹과발길질로 마구때려 鎔澈군의입술이 터져 피가흘렀다。

잠시후 학생들은『너희들 얼음판을 건널수 있겠느냐、건너면 집에보내주겠다』고 살얼음이 낀 폭 5m가량의 샛강을건너도록 강요했다。

어린이들은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조심 샛강을건너 맞은편 둑에이르자 불을 쬐고 있던 중학생들은『너희들 도망가면 죽이겠다』면서『다시건너오라』고 또 강요、永在군은 얼음이꺼질까봐 머뭇하고있었으나 鎔澈군은『강을 건너야 집에갈수있다』며 첫발을 내딛는순간 얼음이 깨지면서 강속으로 빠져 허우적거렸다。

永在군이『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며 손을뻗었으나 손은 닿지않아 10여분간 발만 동동 구르는사이 지나가던 화물트럭 운전사가 트럭을세우고 체인을던져 鎔澈군을 건져내 인근 永登浦 시립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후였다。

한편 중학생2명은 운전사가 鎔澈군을 구조하는사이 원효대교쪽으로 달아나 버렸다。

안방火藥터져 셋死傷
谷城서 競技用갖고 참새잡이가려다

【光州=駐】13일밤10시30분께 전남 谷城郡 古達面 古達里 沈三根씨(42)집 안방에서 화약이 폭발、이마을 沈昌憲군(13·古達국교6년)이 숨지고 주인沈씨의장녀 京良(16·谷城中3년) 장남成一군(14·谷城中1년)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숨진 이웃沈군이 낮 읍내 문방구에서 구입한 운동경기신호용 화약2봉지(1백개들이)를 가지고 沈씨집에 놀러가 참새를잡기위해 빈잉크병에 화약을넣다 마찰로 화약이 폭발해 일어났다。

「사랑의 손길」誠金 本社、新聞協會전달

한국일보社는 작년 12월5일부터 14일까지 각계에서 기탁해온 年末사랑의손길 편기성금 1억5천5백18만7천2백39원、美貨6달러、사우디貨1천7백62리얄、쿠웨이트貨 2백16디나르를 15일 신문협회에 전달했다。

◇15일아침부터 시작된 대입예·체능계실기고사에서 무용과지망 수험생이 기량을발휘하기위해 시험위원앞에서 안간힘을 쓰고있다。(中央大예술대무용학과실기고사장에서)

藝·體能系실기 缺試학생 적어
서울音大 10명결시

15일 각대학별로 실시된 예·체능계 실기고사에서 결시자가 예상외로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서울大음대의 경우 성악、이론전공、기악 피아노전공등이 이날고사를 치렀으나 1백63명지원에 단 10명만이 결시했다。

16일까지 실기고사를 끝내는 美大는 5백68명 지원에 4백42명이 응시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延世大、梨花女大、成均館大、慶熙大、檀國大、誠信女大등에서도 결시자는 있었으나 대부분 80%이상의 높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날 각대학의 실기고사는 시험위원들이 수험생을 볼수없도록 칸막이가 쳐진 가운데 실시됐으나 학생들은 대기실에서 지정곡을 연습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다。

각대학의 이날 결시자수는 다음과같다。(괄호안은 모집인원)

◇延世大▲종교음악(26) 1백19명지원 4명결시▲성악(39) 1백39명 지원 29명 결시▲기악(78) 1백45명지원 15명 결시▲작곡(39) 58명지원 7명 결시 ◇梨花女大▲성악(39) 1백9명지원 12명결시▲작곡(39) 53명지원 7명결시▲종음악(39) 60명지원 4명결시▲국악(39) 81명지원 3명결시▲동양화(65) 1백10명지원 21명결시▲서양화(78) 2백72명지원 53명결시▲조소(52) 91명지원 33명결시▲섬유예술(65) 1백32명지원 19명결시▲생활미술(65) 1백42명지원 42명결시▲장식미술(65) 1백58명지원 25명결시▲도예(65) 1백33명지원 28명결시▲체육(1백17) 4백64명지원 43명결시▲무용(65) 1백7명지원 11명결시

거 구 장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쇼 쇼 쇼

거구장이 교민에게 드리는 구정 특별선물

* 매력의 저음가수 **남일해**씨 토론토에 오다!!

일시 : 1월21, 22, 23, 24일(목, 금, 토, 일) 오후9시~새벽2시까지

장소 : **거 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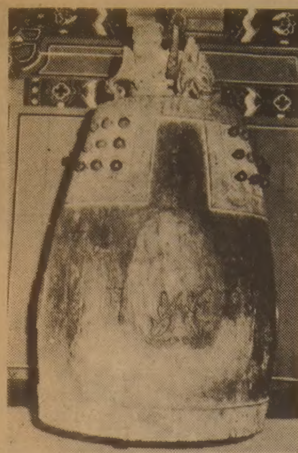
주소 : **5 BETHRIDGE RD.** (키프링×HWY 401 1블럭 북쪽)

권순근과 그의악단 매주 목, 금, 토, 일 출연

전화 : 742—1618

上院寺梵鐘 모조품 달기로

眞品은 國立博物館에 영구보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上院寺동종. 너무 오래돼 모조품을 만들어 달고 진품은 국립박물관에 옮겨 보존된다.

3千萬원들여 10월완성

1,256년 견뎌오느라금생겨

飛天像의 아름다움도 再現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고 아름답기로 이름난 범종인 국보36호 上院寺동종(강원도平昌郡 珍富面東山里)의 모조품이 오는6월20일 제작에 들어가 10월20일 완성된다. 上院寺동종은 1천2백56여년을 지난동안 鐘身에 금이가는등 너무 노쇠해져 그동안 모조품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범종학계와 불교인의 찬반론이 엇갈려 결정을 내리지못해왔다.

15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문공부와 범종학회의 정밀진단결과 내려진것으로 국비 2천만원, 도·군비 각각 5백만원등 3천만원의 제작예산을 확보, 모조품제작을 추진키로 했다는것. 이에 따라 上院寺동종은 오는5월 설계를 끝내고 유능한 업체에 공사를 맡길예정이다.

上院寺동종은 신라聖德王24년(서기725년)에 만들어진것으로 높이 167㎝, 구경 91㎝로 총신은 제각기원을 새긴 唐草文으로 채워졌고 드문드문 무릎을꿇은 1~4사람의 비천상(飛天像)이 피리를 부는모습으로 양각(陽刻)되어있는등 국내 범종중에서는 가장아름다운 모양을 하고있다.

이동종은 처음에는 경북安東樓門에 걸려있던 것을 李朝 睿宗元年(서기1469년) 국명에 의해 지금의 上院寺로 옮겨져 5백13년을 지나오고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모조품은 현재의 동종루각에 걸어놓고 타종을하고 진품은 국립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이다. 【春川=聯】

建坪 25평이하 宅地매각때도 讓渡税 전액 免除키로

建設部

건설부는 1·14조치에서 제시된 宅地공급확대책에 따라 15일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구체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건설부는 아파트지구 이외의 지역이라도 건평25평 이하의 소형주택을 지을경우 땅을 판사람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한다는것도 이방안에 들어있다.

현재는 아파트지구의 경우에 한해 아파트건설업자에게 팔아 25평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지었을때만 판사람의 양도세를 전액면제해주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종류와 면적에 관계없이 매매후 2년이내에 건설하면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줬다. 이것을 아파트지구가 아니라도 25평이하의 주택을 지었을때는 1백%면제시켜 땅의 매각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장기간 소유하고있는 裸垈地를 택지로 활용토록 매각을 촉진키위한 재산세중과원칙이 정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2백평이상의 빈터를 1년6개월~3년간 보유하면 5%, 3년초과 5년이하는 7%, 5년초과 7년이하는 8%, 7년초과 10년이하는 9%, 10년초과는 10%의 재산세를 중과하고있는데 이세율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문제는 앞으로 곧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가 협의, 결정할예정이다.

건설부는 개인및 주택업자들이 쉽게 집을지을수있도록 주거지역내의 토지형질 변경제한을 완화한 방침이다.

알래스카를 開發한다

油田·石炭·農林·漁業 분야

三星·現代·大成·三陟炭座 現地法人과 合作개발 契約

민간기업들이 미국 알래스카州 자원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5일 업계에따르면 현재 국내 업체중에서는 三星物産, 現代綜合商事, 大成炭座, 三陟炭座등 4개사가 공동으로 원주민의 유일한 탄광회사인 추게치社와 공동합작계약을 맺고 베링리버지역의 炭田개발을 위한 탐사작업을 벌이고있으며 鮮逸商船은 이미 유연탄광을 개발, 올해엔 30만톤, 내년엔 50만톤, 84년부터 80만톤씩 수입하게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稅制적극支援·造船도 進出채비

업계는 또한 알래스카의 油田개발과 농림, 어업분야에 대해서도 현지법인과 합작형태로 진출할 채비를 서두르고있다. 또한 造船所건설도 검토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 油田은 매장량이 막대하고 良質이며 이를 개발, 수입하게되면 中東産油國의 의존도를 줄일수있는 잇점이 있다는것이다.

업계가 알래스카州 진출에 적극적인것은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수입에 수송비가 싸게 먹혀 경제성이 높기때문이다.

그런데 에너지당국은 해외자원개발수입을 촉진시키기위해 자원의 개발수입엔 금융·세제면에서 적극지원하고있다.

◇李宣基동자부장관은 美프랭크·머코스키상원의원(알래스카州)의 방문을 받고 한국과 알래스카州정부간의 經濟협력을 협의했다.

李動資部장관 만나 美 머코스키議員

프랭크·머코스키 상원의원(미국 알래스카州출신)은 李宣基동자부장관 초청으로 來韓, 15일 劉彰順국무총리와 李宣基동자부장관을 각각 예방, 알래스카州 경제개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것으로 알려졌다.

머코스키상원의원은 이날 成樂正 韓電사장직무대리와 高準植 浦鐵사장과도 만났다.

광고문의 533 2361

旅券발급 資料 電算처리 計劃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지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여권발급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電算처리키로 하는한편 在外國民이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때에는 즉각 조사확인에 나서 納期前징수나 保全押留등 국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15일 국세청이 마련한 출국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출국에 따른 국세채권의 逸失을 방지하기위해 읍·면·동의 인감증명 발급담당자에게 세무서의 업무연락 전화번호를 배부, 在外國民들이 국내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경우 지체없이 전화통보를 받을수 있도록하고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조사에나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在外國民들이 인감증명발급을 대리신청할때는 재외공관의 확인자료를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려주기로 했으며 美貨10만달러이상의 고액체납자로서 재산도피혐의가 있는 在外國民에대해서는 領事업무상 행정제재요청을 외무부장관에게 요청키로했다.

玩具類 76%·TV60% 擴大

프랑스, 올해 對韓수입쿼터量

프랑스의 올해 對韓수입쿼터가 완구류의경우 작년보다 76%, TV는 60%, 견직물·우산·잡제품은 15~17%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貿公에 따르면 완구류의 수입쿼터는 지난해2백50만프랑에서 올해는 4백40만프랑으로 76%가늘었고 TV는 5백만프랑에서 8백만프랑으로 60%, 우산류는 3만개에서 3만5천개로 17%, 견직물류는 40만프랑에서 46만프랑으로 15%, 잡제품은 6백만프랑에서 6백90만프랑으로 15%가 각각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디오는 6천4백만프랑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青田洞 아파트에 협동幼兒院 착공 堤川市

【堤川=聯】堤川市는 青田洞아파트단지에 대지 2백50평을 마련, 총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 오는2월말께 협동유아원신축공사를 착공하기로했다.

오는 3월말에 협동유아원이 준공되면 이곳 아파트단지내의 4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50명을 수용하게되며 堤川市는 이들 유아원어린이들을위해 교구 놀이기구등 2백78점을 마련해 주기로했다.

堤川市 青田洞 아파트단지에는 4백가구의 공무원아파트와 서민아파트가있어 1천여명의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品位추락教師 嚴斷

師道·교육공무원자세確立위해

【春川=聯】강원도교육위원회는 15일 사도및 교육공무원근무태세확립을 위해 교직자로서 품위와 교권을 추락시키는 교원에 대해선 엄중조치키로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지시했다.

도교육위는 도내 일부 교직자들이 학생및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등 교권추락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도박 음주폭행, 금품수수, 이성문제및 부채등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야기시킨자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범법행위자 △봉급을 압류당한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자 △원거리 통근이나 가정불화로 근무가 불성실한자 △잦은 결근 병가및 연가등으로 근무에 불충실한자 △학습지도및 생활지도등에 무능력하다고 인정되는 자등 교권추락행위및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이를 숨기거나 다른학교로 전출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엄중조치한후 즉시 보고토록 했다.

묵묵히 일하는 교원은 표창

또 각학교장 중심으로 교원의 자질향상과 소명의식을 높이고 숭고한 국민교육을담당하는 성직자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교원을 발굴, 표창하는등 선량한 교원보호에 힘쓰도록했다.

觀光地7개소 道서추가指定

【大邱=聯】경북도는 15일 迎日郡九龍浦邑迎日灣지구등 7개소를 관광지로 추가지정 개발하기로했다.

새로 지정된 관광지는 迎日灣, 迎日郡淸河面月浦해수욕장, 迎日군화진해수욕장, 盈德郡寧海面大洪해수욕장, 盈德郡南亭面長沙해수욕장, 蔚珍郡西面불영계곡, 蔚珍邑蔚津해수욕장등 7개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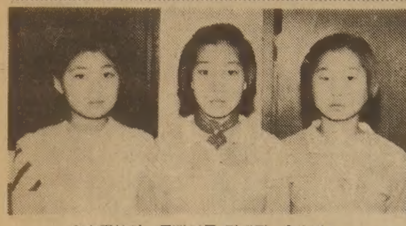
이로써 도내 지정관광지는 聞慶새재등 종전 9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났다.

3천63件 사업벌여 零細民등 취로시켜

【春川=聯】강원도는 15일 총예산 3백70억7천4백만원을들여 3천63건의 각종사업을 이달안에 착공하여 경기부양과함께 영세민등을 취로시키기로했다.

도는올해 도및 시·군이 추진할 각종 지방건설사업등 총3천6백52건중 84%인 일반사업 1천1백38건, 새마을사업 1천6백4건, 취로사업 3백21건등 모두 3천63건을 조기발주키로 했는데 총사업비중 39%인 1백44억8천6백만원을 노임으로 풀어 영세민등 2백44만9천명을 취로, 구호키로했다.

體操 3有望株 우울한 進學



◇中學校서 공백기를 맞게될 3소녀。

體操部없는 中學校가야 學區制에묶여 進路막혀

한창技倆 자랄時期…시들우려

江陵國校 졸업반 少年體典서 종합優勝

강원도 체조계의 소녀기린아 3명이 체조부가없는 중학교에 진학하게돼 스타로 발돋움할 꿈이 깨질 위기를 맞고있다.

이들 소녀유망주의 선수생활중단은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신인선수들을 발굴해야할 현재의 체조계에 손실이 되고있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 소녀체조유망주들은 江陵市 江陵국교6년趙銀鐘(13) 崔견주(14) 崔선미양(13)등 3명으로 이들은 지난해5월 光州에서열린 전국소년체전 국민학교 체조부문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강원도의 명예를빛낸장본인들.

특히 趙양은 이대회에서 평행봉·마루·뜀틀등 3개부문에서 66명의 출전선수를 물리치고 3관왕을 차지, 종합우승한 유망주이다.

또 崔선미양은 종합4위, 崔견주양은 종합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중학진학을 앞두고 촉망되는 재질을 포기해야만하는 환경때문에 실의에 빠져있다.

이들은 학구제에 묶여 체조부가 있는 서울등지의 중학교에 진학, 자질을 향상시킬 길이 막힌채 오는 2월9·10일 실시되는 추첨에 따라 江陵시내 경포여중·영동여중·강릉여중등 3개중학교중 1개교에 진학해야만 하기때문이다.

현재 강릉여중과 경포여중에는 체조부가없고 영동지방에서 유일하게 체조부를 육성해오던 영동여중마저도 지난해 체조부를 해체해버려 이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 선수생활을 중단해야만할 실정인것.

趙양은 3학년때인 79년 체조를 배우기 시작, 그해 9월 제8회 江原도학도체육대회서 종합2위를 차지하고 그해 제1회회장기쟁탈 강원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도 2위를 차지, 우수선수로서의 자질을 과시했다. 【江陵=聯】

표고값 계속 保合勢

永同 貫당 3만원…昨年價 밑돌아

【永同=聯】충북永同지방 표고값이 지난해11월이후 계속 보합세를 보이고있으나 매기는 한산, 관련상가들이 울상을짓고있다.

15일 이곳 표고상가에 따르면 현재 표고값은 지난해11월초와 거의 같은 수준인 1등품이 관당5만원, 2등품 3만원, 등외품 1만5천원선으로 관당 평균 3만여원의 가격을 형성, 예년의 이맘때의 평균가인 4~5만원선엔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매기마저 없다는것.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1 : 3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 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 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12 : 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 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3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새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 : 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 : 30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수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오후 4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 : 30 일요오후 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9 : 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여호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23편)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마누라들이 자지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화가 나있는것 같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까봐"

"운명의 여신을 만나는 순간이니 좀더 다소곳해 지는 거라구"

"뭐야, 닥쳐, 조용할거지?!"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未踏의 체급」 宿願풀것인가

崔忠日, WBC슈퍼페더級 오늘 타이틀挑戰

崔忠日 中盤이내 KO자신

徐強一·金賢治·金台鎬등 挑戰 모두좌절

【마닐라=聯合】「필리핀 킬러」 崔忠日(24)이 프로복싱 WBC슈퍼페더급(한계체중 58·97kg) 王座를 차지할까. WBC1위이며 13연승(12KO)의 기록을 갖고있는 강타자 崔忠日과 필리핀 출신의 챔피언 롤란도·나바레테(25)간의 15회전 타이틀전이 16일밤10시 이곳 리잘야구장 특설링(수용능력 3만5천명)에서 열린다.

숙명의 일전을 앞두고 도전자 崔는『몬트리올 올림픽서 실패했던 나는 이 기회를 학수고대해왔다.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지금 컨디션은 대단히 좋으며 중반이전에 KO승을 거두고 싶다. 충분한 강화훈련을 해왔기때문에 체력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15회까지 뛸수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崔는 79년5월 프로전향이래 8명의 필리핀선수와대결, 8명 모두 5회이전에 KO시켜 필리핀선수에 특히 강한 기록을 보이고있다.

특히 나바레테—崔忠日 타이틀매치는 필리핀서 6년만에 열리는 세계타이틀매치여서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있으며 마르코스대통령은 13일 양측선수와 매니저를 대통령관저로불러 선전을 당부하고 대전흥행수입에 대한 세금을 면세해주겠다고 약속하기도했다. 입장권도 매진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하와이서 선수생활을 하고있는 왼손잡이 나바레테도『필리핀팬들에게 KO선물을 주겠다』고큰소리쳤다. 4심제로 진행되는 이번 타이틀매치주심은 지난해 金煥珍—로페스전의 심판이었던 찰스·하세트씨(미국)로 결정됐다.

마닐라의 권투관계자들은 두선수의 권투스타일이 대조적이어서 흥미있는 타격전이 벌어질것으로 예상했다. 키1m73의 崔는 칼날같은 원투 스트레이트를 주무기로하는 아웃 복서이고, 키1m68의 나바레테는 훅과 스트레이트, 어퍼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노련한 인파이터이다. 나바레테의 전적은 39승(20KO)8패3무.

주니어 라이트급(슈퍼페더급과 동일체급)의 韓國선수들에게는 恨이맺힌 체급. 徐強一 金賢治 金台鎬 吳英鎬등이 도전에나섰으나 모두 실패 했었다.

◇마르코스 善戰당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3일 대통령관저서 도전자 崔忠日과 악수를 나누며 선전을 당부하고있다。왼쪽끝은 챔피언 나바레테。

나바레테 훅 威力的 인파이터

한편 필리핀의 국제적흥행사인 로페、사레알씨[illegible] 강펀치의 소유자며 빠르다。그러나 나바레테는 더강한주먹이 있음을 여러번 입증했다。주먹의 강도가 승부를판가름할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인 준씨도 두 선수중 누가 먼저 강타를 먹이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다른 전문가들과마찬가지로 어느쪽이이기든 초반에 승부가 날것으로 예견했다。

日오픈 배드민턴

黃善愛·金練子조 中共선수에 脫落

黃善愛·金練子조는 15일 日本고오베(神戶)서 열린 82년도 日本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3회전(준준결승)서 中共의 리링웨이·류사組에 15-10、15-4로 패해 탈락했다. 黃·金조는 1회전서 부전승을 거두고 2회전서는 日本의 요꼬야마·니시무라組를2-0(15-7、15-5)으로 제압했다.

이날 柳尙希·金允淑조도日本선수에 15-5、15-6으로 패해 탈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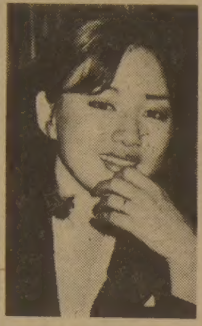
週末 인터뷰

TV서 모습감춘 話題의 두 탤런트 事情

KBS·TV 여자 간판탤런트인 丁允姬양과 張美姬양이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감추었다. 丁양은 최근 꼬리를 물고있는 염문속에 「脫KBS」를 선언했고, 지난해 X양 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張양은 『당분간 영화에만 전념하겠다』며 「TV휴업」을 표명했다. 연초부터 화제를 뿌리고있는 두 미녀 탤런트를 주말에 만나본다. 【善】

丁允姬

"드라머속 반복演技에 싫증"



丁允姬양의 얼굴이 TV에서 사라진 것은 지난해 9월. KBS제2TV 일일극 「물망초」 출연을 끝으로 브라운관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이에따라 자자한 소문은 移籍說과 結婚說.

—요즘 TV출연이 없어 팬들이 궁금해하는데?

『연기자로서 변화를 갖고 싶었어요. 데뷔이후 7년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의 드라머에서 비슷한 연기로 일관해오다보니 나자신도 보기싫어졌어요. 또 영화출연도 겹려있고요.』

—방송가에 나돈 얘기로는 전속금이 맞지않아 KBS의 재전속제의를 거부했다는데?

『방영중인 「약속의 땅」출연요청과 함께 재전속제의가 있었지만 연기변화요구에 겹쳐 액수의 차이등 이유로 거절했지요.』

丁양이 요구한 전속금은 2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3천만원이었다』고 애써 수정한다.

—최근 염문이 끈질기게 나오는데?

지난해 在美의사와의 약혼설에 이어 최근에는 재벌 2세C모씨와의 결혼설까지….

『모두터무니없는소문이에요. 한두차례 선을 본 일은 있지만. 지난해 大鐘賞수상 보너스로 美國에갔을때 그의사를 만나지않았나하는 의심도 많이 받았지만 그럴만한 개인행동은 절대 없었어요. 그리고 C모씨도 어느식당에서 처음만나 첫인사를나눈 일은 있지만 지금은 그 사람 얼굴도 기억할수 없어요』

그러나 올해 29세인 丁양은『30고개를 넘기지않겠다』고 밝혀 올해 안으로 결혼할 뜻을 비친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TV드라머를 해야죠. 2월말께 MBC·TV에 출연예정이에요』

채널은 다르지만 끝내 그는 TV를 떠나지는 않는다.

張美姬

"누가뭐래도 결백하면 그만"

밝은 표정. 구김살이 없다. 지난해 X양사건의 구설수가 남길법도한 괴로운티는 한점도 없다. 張美姬양은 지난연말 출연작인 「달무리」(KBS 제2TV)의 종영이후 푹 쉬고 있다고 한다.

—한때 「脫TV」 선언설이 팬들을 아쉽게 했는데? 또전속사와의 마찰설도나돌고….

『현재 KBS에 전속돼있지는 않아요. 불편한 관계도 아니고. 다만 영화출연이 밀려있어 몇달간만 TV출연을 쉬기로 했을뿐이에요』

연기자가 무대를 떠나면 생명을 잃는것과 다름게 없으니 영화·TV·연극 어느 것이든 대중속에 뛰어드는작업이라면 앞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한다.

『출연 약속한 영화가 국내 촬영 아닌 해외 로케이션이에요. 약 3개월정도 걸린다니까 그동안 TV에 못나갈 수 밖에요』

출연예정인 영화는 東協상사가 홍콩로케이션예정인「스지원과 스타페리金」「망향」 그리고 국내에서 촬영하는 「종로 블루스」「人間市場」「10시10분」등 무려 5편이나 된다. 오는 2월중순 출국예정이라고.

—지난해는 구설수에 휘말려 인기손상이 컸는데 새해의 설계는?

『어느날 기사 스크랩을 펼쳐보았더니 구설수에 오른것이 작년의 일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결백하면 그만이겠지요. 그 결백을 믿어주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올해는 욕심부리지 않고 성격이 잘 살아나는 작품속에서 땀흘리겠어요』

그녀는 16일 방영되는 KBS·TV문학관 「안개꽃」출연(지난12월에 제작)을 끝으로 TV에서 잠정은퇴한다. 그리고 다시돌아온다.

流星의 賦 <28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⑮

흠계남은 히데쓰구의 거조를 찬찬히 관찰했지만 이 인물이 대인물(大人物)인지 경박한 소인배(小人輩)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어떤 말과 태도는 대인연(大人然)했고, 어떤 말 어떤 태도는 경박하기 이를데 없었던 것이다.

히데쓰구가 과연 풍신가(豊臣家)의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풍신가의 장래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일이라고 할밖에 없다.

계남이 히데쓰구를 간단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히데쓰구는 어느면으로 보아도 묘한 인물이었다. 이 기회에 이 인물에 관한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로써 풍신수길을 조명(照明)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히데쓰구가 수길의 누님 아들이란 것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집안과 자기의 팔자로선 평생을 빈농(貧農)의 아들로서 비천하게 살아야 할 것이었는데 수길이라고 하는 외삼촌(外三寸)을 만났기 때문에 뜻밖인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수길은 히데쓰구를 자기의 후계자로 정해놓긴 했으나 사사건건 불만이었다.

히데쓰구는 어린 나이로 가와찌(河內)에서 2만석의 소령(所領)을 얻었다. 그이후 숙부 수길을 따라 십대(10代)의 밥에서부터 전투에 참가했다. 물론 일방(一方)의 대장(大將)으로서다.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을것이다』 숙부 수길이 기회 있을 때마다 히데쓰구를 보고 한 소리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란 말은 자기의 후계자로 하겠다는 뜻일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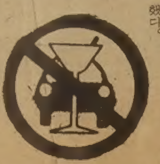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

고 수길의 부하들도 짐작했다. 그런 때문에 모두 히데쓰구에게 정중한 태도를 취했다. 자연 허세(虛勢)를 부리게도 되어 보좌하는 노장(老將)들에게 거만한 태도로 임했다. 열 여섯살의 나이로서 말이다.

몇번의 전투를 치렀다고 하나 보좌하는 장군들이 만사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공(大功)이 없는 대신 큰 실수도 없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나이가, 결과적으로 역사(歷史)를 좌우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은 17세때 였다.

그 싸움을 후세의 사가들은 고마끼 나가꾸떼(小牧長久手)의 전투라고 부른다. 시기는 수길이 일본의중앙부(中央部) 24개국을 누르고 있을 무렵이다. 수길은 그 세력으로써 동해방면(東海方面)에 근거를 둔 덕천가강(德川家康)을 체압하려고 친히 대군(大軍)을 이끌고 오와리지방(尾張地方)에 진출했다. 가강(家康)도 본거지인 미까와(三河)에서 출동하여 오와리에 포진(布陣)하여 거의 3배의 병력을 가지고 있는 수길군(秀吉軍)과 대치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허실(虛實)을 살피느라고, 행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피아(彼我)는 견고한 야전진지(野戰陣地)를 구축하고만 있었다. 전선(戰線)이 교착상태(膠着狀態)가 되었다. 이럴 경우 경솔하게 행동을 시작한 편이 패배할 것은 명백하다. 그런 까닭에 적이 움직이면 반격(反擊)한다는 태세를 쌍방은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길의 자중책(自重策)을 써서 사태를 관망하고있는 터이었는데 구오다가(舊織田家)의 동료이었던 이께다쇼오뉴 데루마사(池田勝入 輝政) 부자의 헌책(獻策)이 있었다.



파격적인 대세일!

희 소 식

ꟿ 햅쌀 가격이 또 많이 내리고 새로운 쌀도 나왔읍니다. ꟿ

*장미쌀	(팬.아시아.로즈)	50 LB	$21.75
*코맷·라이스	(Comet Rice :가주특산미	50 LB	$18.95
*사뽀로 라면	(24×3.5 OZ.		$ 7.95

고려식품	동양식품	제일식품	한국식품 (본점)	한국식품 (동부)	한국식품 (서부)
680 BLOOR ST.W.	1662 JANE ST.	712 BLOOR ST.W.	721 PALMERSTON AVE.	2810 EGLINTON AVE.E.	1054 ALBION RD.
531-2242	248-5131	532-1054	532-2961	261-6111	742-7711

한국식품(동부) :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 ...
불리치료, 부인병
시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스토아 안에있는 POST OFFICE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 : 923-1206

캐나다의 유명한 도난방지기 회사에서 딜러쉽 이나 세일즈에 관심있는분 연락 요망. (영어, 한국말 가능한자)
☎ : 661-3722(Mrs. LEE)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TELEX Share하실분을 구합니다.
☎ : 978-6259(B), 226-2618(R) Mr.리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데번포드×오크우드지역)
☎ : R)960-0761, B)656-3020

Become Hospital Ward Clerk-Secretary.
$7/Hour. Join 3days training Seminar)
☎ : 961-9464

형님 정용평씨(Anthony Chung)를동생 용위씨가 찾으니 아래주소로 곧 연락바람.
주소 : 630 Bathurst St.

장난감, 선물용물건 판매 세일스맨 구함.
기존 또는 새로 버라이어티 가게등을 발굴해 저회회사 상품을 소개, 판매할 세일즈맨 구함.
☎ : 461-3555

일요일에 일하실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여자분)구함
정오 12시~오후8시까지 위치 : 다운·타운
☎ : 921-0624

* 램프, 갓 미싱 집에서 하실분 구함.
* 영어를 하실수 있어야함.
Lamp Boutigue (655 mt. Pleasant Rd.
☎ : 483-7643, 221-4433

고급코트를 만들수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 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수 있음.
☎ : 859-4366

매매및 양도

전망이 밝은 70여개의 가게가 들어선 새로지은 몰 안에 Take-out food Business.
☎ : 299-1713

주에 6일간 영업(선물, 옷등 기타)
30년간 해오던 잡화상을 귀국관계로 급매함.
가격 : $10,000 + 스탁(대략 $25,000)
* Penny Pincher Store
* 888 Danforth Ave.
☎ 461-9771 Mr. Lue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VENPORT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TUCK SHOP 가정사정상 매매코자함.
주매상 : $2,500 렌트 : $600(전기, 물세 포함)
한달 순수익 : $2,200
$28,000+스탁(물게지가능)
(10 : 00 A.M~10 : 00P.M)
☎ : (416)461-5242(미시사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3,000, 머신 $800, 렌트 $550 살림집 포함
☎ : 1-387-3983 권리금 $10,000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ANFORTH. ☎ : 466-3423

직접팝니다. 매우 이익이 높은 영·스트릿 & 에그린톤에 있는 빵집(델리카티슨), 건강상 이유로 판매함.
☎ : 낮, 487-2393, 저녁, 481-4687(Teresa)

이사관계로 급히 매매코저함. 쌉은시간의(10 : 00AM~6 : 00PM)GIFT SHOP으로써 은종류, 크리스탈, 밥상보등 여러종류 취급. ☎ : 낮(656-6660), 밤(224-2227)

스카보로 지역에 있는 두개의Convenience Store을 팔고자 합니다. 꼭히 관심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 : 686-1890 오전11시~오후3시 MR. LEE

가정사정으로 성업중인 가스바와 버라이어티 가게를 급매코저 함.
년매상 : 가스 바(70만갈론)
주매상 : 버라이어티 스토아($3,150)
위 치 : 하이웨이89×24(Shelburne)
☎ : (519)925-5210 프랭크(오후3시이후 연락바람)

오래된 미시사가에 있는 이익높은 꽃집 팝니다.
☎ : (낮)826-1591, (밤)826-3246

①버라이어티(주매상 $5,000) $45,000
②버라이어티(주매상 $4,000) $25,000
☎ : 481-3443(B), 745-5485(R) 황순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매 매
* 토론토, 해밀톤, 오샤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통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226-5430(R)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이정룡)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플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85 남파·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6 BLOOR ST. W.(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53 WESTON RD.(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토브로 앞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9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sa, 현CA Office근무등
● BOOK KEEPING & ACCOUNTING 이영철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엠블,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테니스스타 오스틴 AP、최우수선수로

【신시내티14日AP=聯合】美國의 10대테니스 스타 트레이시·오스틴(19)이 13일 AP통신에 의해 81년도 美최우수여자선수에 선정됐다.

오스틴은 지난해 좌골신경통으로 1월부터 5월까지 테니스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으나 그후 7개월동안 14개대회에 출전, 8개대회에서 우승했으며 총65차례의 경기에서 58승7패를 기록했다.

81년에 모두 45만3천4백9달러를 상금으로 벌어들인 오스틴은 지단79년에도 AP통신에 의해 美최우수선수로선정됐었는데 美여성테니스협회의 랭킹은 79년에는 마르티나·나브라틸로바, 크리스·에버트·로이드에 이어 3위, 81년에는 나브라틸로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오스틴은 지난해 나브라틸로바와 6차례의 경기를 벌여 4승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⑪

그러나 난리통이었다. 선택은 죽기아니면 살기가 있을뿐이었다. 살기위한 선택은 아무리 비인간적이라도 정당했다.

『떠나라』

할머니가 최후통첩처럼 엄격하게 말했다. 수철이가 수지를 잡아끌었다. 수지는 엄청난 슬픔과 자책감에 정신이 나간것처럼 멍한 얼굴로 허청허청 끌려갔다.

가끔 목구멍으로 끄륵끄륵 이상한 소리를 내며 혹시나 하는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대며 동생을 찾는 일을 단념못할때마다 할머니도 엄달아 쉬된 소리를 냈다.

『오목아, 오목아』

그러나 아이만도 못하기가 싫어서 편히 그래보는 말마음에 지나지않았다. 이미 피난민은 드문드문해져 길위은 아이가 휩쓸려다닐만하지 않았다. 할머니도 수지도 똑같이 거짓말장이였다. 다만 할머니의 거짓이 허술한데 비해 수지의 거짓은 완벽했다. 수지는 [illegible] 자기 자신까지 속여먹을 수가 있었다. 길 잃고 헤맬 오목이를 생각할 때마다 치받치는 설움은 절절했고 가슴을 에는 가책도 동생을 놓쳤기 때문이지 일부러 놓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실상 그 판국에 어서어서 사지(死地)를 벗어나 살길을 찾아야한다는 집념외에 것은 모조리 거짓이라도 그만이었다. 살길은 오로지 어서어서 [illegible]을 재촉해 앞서간 피난의 대열을 쫓는 일뿐이었다. 난리통에 고립된다는 것처럼 무서운일은 없었다. 오목이를 잃어버리는일이 그토록 수월할수있었던건 생전처음 [illegible] 사람들의 아비규환때문이었는데 언제 그랬더나싶게 국도는 쓸쓸하게 비어있었다. 국도까지만 나가면 피난의 대열에 끼일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수지네 식구들은 크게 낙담했다.

『오목이 고년 때문이라니까. 잘 없어졌다. 그런 예 [illegible]』

할머니는 그들이 낙오하게 된 탓을 오목이에게 뒤집어 씌우며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처럼 처진 피난민이 아주 없는건 아니었다. 드문드문 만났다가도 곧 헤어졌다. 확망히 그들을 앞질러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지때문에 아무래도 어른들끼리의 걸음만 못했다. 그럴때마다 할머니는 오목이가 없어진걸 터놓고 다행스러워 했다.

『오목이 고년 잘 없어졌지. 걸리기에도 업고가기에도 반지빠른 나이거든』

피난통에 다섯살이란 나이는 걸릴수도 업을수도 없는 애매한 나이라는 의미밖에지니지 못한다는데 수지는 전율했다. 그러나 곧 속으로 미소하며 편안해졌다. 자기 역시 일곱살이된지 며칠 안됐고 걸음이 시원치 않아 지금 식구들을 뒤처지게 하고 있었다. 자기 역시 할머니가 마음 한번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내버려질수도 있다는 생각이 수지를 두렵게 하기는 커녕 오히려 편안하게 했다. 수지는 좀 전에 혼자서 감쪽같이 저지른 나쁜짓의 유력한 공모자를 얻은 기분이었다. 난리통의 모든 사람들은 공모자였다. 인두겁을 쓴 짐승이었다.

[illegible] 세상같으면 일급살인은 제집에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짓 수지는 순식간에 쉽게 받아들였다.

수지는 어서어서 편안해지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가록 [illegible] 한 가책과 식구들이 이해한 가책이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건 실상 수지가 노린바였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수지를 매우 편안치못하게 했다.

게다가 오목이가 없어졌는데도 편안치 못하다는게 수지를 혼란스럽게도 절망스럽게도 했다. 그건 어떻게든벗어나야 할 고약한 기분이었다.